

# ***FULLER***

## ***THEOLOGICAL SEMINARY***

---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 **DMin Final Project Approval Sheet**

**This DMin Final Project entitled**

**A MISSIOLOGICAL DESCRIPTION OF HONAM CHURCH  
PLANTING STRATEGIES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CHURCH GROWTH PERSPECTIVES OF  
DONALD MCGAVRAN**

**written by**

**Jang Hee Hong**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has been read and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 of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Mentor: Peter Im, PhD

**Date** March 2017

**A MISSIOLOGICAL DESCRIPTION OF THE HONAM CHURCH  
PLANTING STRATEGIES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CHURCH GROWTH PERSPECTIVES OF  
DONALD MCGAVRAN**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의  
호남지역 교회개척 선교전략에 관한 연구

By

Jang Hee Hong

A DMin Fi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March 2017

## **ABSTRACT**

Hong, Janghee

2017

“A missiological description of the Honam church planting strategies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Church growth perspectives of Donald McGavra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Min. in Global Ministry. 86 pp.

I had great privileges to work with missionaries from the Southern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This writing project is a missiological description of the church planting strategies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from the ‘Church Growth Perspectives’ of Donald McGavran.

Chapter 1 is an introduction. It dealt with background, purpose, goals, importance of this research. Central research issue, research questions, and delimitations provided a framework of this project.

Chapter 2 is a biblical perspective on strategies of church planting. It described biblical foundations of the Church growth scholar like Donald McGavran, Alan Tippett, and Peter Wagner.

Chapter 3 is a strategic perspective on church planting. It focused on Church growth perspectives of Donald McGavran. It includes the church growth eye, people group principle, effective evangelism, receptive principle, discipling and perfecting, homogeneous unit principle, people movement, church planting, the bridges of God, and setting bold goals for evangelism.

Chapter 4 described Church planting strategies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board as they planted church in Homan province in Korea. They employed Navius method as they develop local leader. It traced historical development and dynamics of church expansion, some Church planting characteristics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board.

Chapter 5 described the church planting strategies for Honam province. I developed these strategies learning from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Board. It includes strategies of key person, homogeneous unit, receptivity, the bridges of God, group conversion, contextualized church planting, and effective church planting movement.

Chapter 6 is conclusion. I summarized stages of ministry focus paper and suggested further study topics.

Mentor: Peter Im, Ph.D.

258 words

## 개요(ABSTRACT)

홍장희

2017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의 호남지역 교회개척 선교전략에 관한 연구”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Min. in Global Ministry. 86 pp.

필자는 남장로교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한 경험을 반추하였다. 본 논문은 호남지역 교회개척 전략을 위해 미국 남장로교의 호남지역 교회개척 전략을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선교 목회학적 기술이다.

제1장은 미국남장로교 선교부의 교회개척 선교전략에 관한 연구의 개관으로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연구 목표들과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핵심 연구 주제와 연구 질문들로 본 논문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개척 전략에 관하여 다루었다. 풀러 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을 발전시킨 교회성장학자들이 가졌던 교회개척에 관한 성경적 배경을 기술하였다.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을 위한 성경적 배경으로, 모든 민족, 예수님의 비유, 정보와 계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충정, 전도계획, 제자우선, 집단개종,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개종, 수용성, 수확신학, 하나님의 다리와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의 종말론적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교회성장학에 나타난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전략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맥가브란의 선교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교회성장학적 안목, 인간집단의 원리, 효과적 전도 원리, 수용성 원리, 제자 우선의 원리, 동질집단 원리, 인간집단 운동, 토착교회 원리, 교회개척의 원리, 하나님의 다리 원리, 그리고 담대한 전도계획의 원리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호남지방 교회개척선교 전략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남장로교가 호남선교를 시작하게 된 배경, 네비우스 선교 방법, 핵심인물,

기독교 전파 방식, 확산경로, 확산 메커니즘, 그리고 남장로교의 호남지방 개척선교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호남지역 교회개척 전략을 기술하였다. 미남장로교 선교부의 통전적 선교전략을 바탕으로 핵심인물 전략, 동질집단 전략, 수용성 전략, 하나님의 다리 전략, 집단개종 전략, 토착교회 전략, 담대한 계획, 그리고 효과적인 개척교회운동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를 요약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함으로 본 논문을 마쳤다.

Mentor: Peter Im, Ph.D.

217 words

## 헌정(DEDICATION)

본 논문을 하늘에 계시는 어머니 오광희 권사와 최명순 전도사께 헌정한다. 어머니는 친구 최명순 전도사를 전도했다. 최명순 전도사는 국난으로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지내며 호남 지역 여러 교회를 섬기셨던 여교역자이다. 한국교회의 성장 배경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했던 여인들의 업적이 크다. 최전도사님은 그 중 한 사람이다. 어머니와 전도사님은 늘 한 분과 같았다. 누가 나를 낳은 어머니인지 지금도 분별하기 어렵다. 믿음으로 나를 낳으셨고 성장하도록 도우셨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삶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 되시고 두 분은 머리돌이 되신다.

또한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조선 땅 호남지역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활의 주님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하여 후원한 모든 분들께 이 글을 드린다.

##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성삼위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린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세우셨다. 그의 아들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폴리신학교까지 인도하셨다. 그동안 삶의 과정마다 요나의 기적과 같은 여정이었다(마 12:39). 특별히 폴리신학교의 노년의 유학생들은 신비함의 연속이었다.

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심정으로, 늦은 나이에 폴리신학교를 찾았다. 두 제자는 기대하며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죽음에 이르자 희망을 잃었다. 그들은 삶의 마지막 날의 석양을 바라보듯 허탈한 마음으로 고향을 향한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슬픔이 가득했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나온 날과 육체의 남은 날을 헤아려 보니 같은 처지였다.

2012년 봄학기 수업이 시작되면서 반전이 시작되었다. 이광길 교수님의 “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다.

박기호 교수님의 ‘타문화 교회개척’ 강의는 가슴을 뛰게 하였다. 신학생으로 교회개척을 시작하여 지금도 교회개척을 갈망하며 고민하고 있는데 선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회개척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마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였다.

임윤택 교수님은 ‘선교학적 통섭’의 키워드로 폴리 선교학의 넓은 지식을 펼쳐 보이셨다. 필자의 생각을 바꾸어 넓은 세계를 동경하게 하였다. 도널드 맥가브란, 랄프 윈터 선생님의 이야기는 소경 바디메오 처럼 그 동안 걸쳤던 낡은 옷을 미련없이 버리게 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과 믿음을 마음에 담게 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의 리더십 강의는 부흥회이었다. 은사개발 훈련과정에서 그 동안 어머니 뱃 속으로부터 지금까지 지난 일들을 생각나게 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은사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보게 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부르시는 부름이 있었지만 응답하지 못했고 항상 보편적인 성공목회에 눈을 돌리며 억지로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교회개혁”이 지금까지 걸어온 사역이었음을 알고 놀랐다.

결론이 놀랍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을 행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비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게 된다. 선지자들이 많은 부분과 모양으로 말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마음이 뜨거웠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모였고 기도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확인하였다. 엄청난 에너지였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비로서 흔들림 없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선 것 같이 나도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임윤택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모든 사역을 여기에서 마칠까 망설이고 주저하던 필자에게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지도하셨다. 앞으로 남은 사역도 임윤택 지도교수님의 지도를 받고싶다. 그리고 박기호 교수님, 이광길 교수님,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께 잊을 수 없는 감사를 드린다.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그네의 황홀한 석양을 맞이하고 싶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ABSTRACT.....	ii
개요(ABSTRACT).....	iv
헌정(DEDICATION) .....	vi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	vii
목차 (TABLE OF CONTENTS) .....	ix
표 목록(LIST OF TABLES) .....	xii
그림 목록(LIST OF FIGURES).....	xiii
제 1 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Background) .....	2
연구의 목적(Purpose).....	6
연구의 목표(Goals) .....	6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7
연구의 중심 과제(Central Research Issue) .....	7
연구의 질문들 (Research Questions) .....	7
연구의 범위(Delimitations) .....	7
연구의 방법(Methodology) .....	8
연구 개관(Overview of the Study).....	9
요약(Summary) .....	9
제 2 장 성경에 나타난 교회개척 전략.....	10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의 성경적 개념.....	11
모든 민족을 향하여 .....	12
예수님의 비유말씀 .....	13
정보의 원리와 계수문제 .....	14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총직성.....	15
회심성장의 원리 .....	16
전도계획 .....	18
제자 우선의 원칙 .....	18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의 역학.....	19
집단개종에 의한 교회개척과 성장 .....	20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개종 .....	21
수용성 원리 .....	22
수확신학 .....	23
하나님의 다리 .....	24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의 종말론적 소망.....	25
종말론적 완성 .....	26
요약 .....	27
 제 3 장 교회성장학에 나타난 교회개척 전략.....	28
맥가브란(McGavran)의 신학적 유산.....	28
성경과 십자가 .....	28
신학적 방법 .....	29
하나님의 복음 .....	30
인류학적 통찰 .....	30
전도신학(Theology of Evangelism) .....	30
교회성장학적 안목 .....	31
인간집단 원리 .....	32
효과적 전도 원리 .....	32
수용성 원리 .....	33
제자 우선의 원리 .....	34
동질집단 원리 .....	36
인간집단 운동 .....	37
토착교회 원리 .....	39
교회개척의 원리 .....	41
하나님의 다리 원리 .....	42
담대한 전도계획의 원리 .....	44
목표설정 .....	45
과감한 계획 .....	46
연구조사 .....	46
평가 및 채수립 .....	47
요약 .....	47
 제 4 장 미남장로교회 선교부의 호남 교회개척전략.....	48
미국 남장로교의 호남지방 선교전략.....	49
남장로교의 호남선교 .....	49
호남 선교구역 .....	50
네비우스 방법 .....	51
핵심인물 .....	54
남장로교회 연대표 .....	57
복음전파 방식 .....	58
확산경로 .....	59
남장로교의 선교확산 메커니즘 .....	61
미국 남장로교 호남선교의 특징.....	62
요약 .....	64

제 5 장 호남 지역의 교회개척 전략.....	65
통전적선교 전략 .....	65
사회복지 선교전략 .....	65
교회중심의 아동선교 .....	66
핵심인물 전략 .....	66
동질집단 전략 .....	67
수용성 전략 .....	67
하나님의 다리 전략 .....	67
집단개종 전략 .....	68
토착교회 전략 .....	68
담대한 계획 .....	69
효과적인 개척교회운동 .....	69
요약 .....	70
제 6 장 결론과 제언.....	71
요약 .....	71
제언 .....	72
부록 A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호남지방교회 개척현황.....	72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82
약력(VITA) .....	85

## 표 목록(LIST OF TABLES)

<표 1> <a href="#">남장로교회 연대표</a> .....	56
---------------------------------------	----

## 그림 목록(LIST OF FIGURES)

<그림 1>	호남 교회개척전략 .....	8
<그림 2>	남장로교의 호남선교 확산경로 .....	60
<그림 3>	미국 남장로교의 호남선교 확산 메커니즘 .....	61

## 제 1 장

### 서론

본 장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교회개혁 선교전략에 의한 연구의 개관으로 연구의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목표들, 그리고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얻어진 핵심 연구 주제와 연구 질문들이 본 논문의 범위를 설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장로교 선교부를 위해 호남지방을 예비해 두셨다. 호남인들은 복음을 수용하였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변혁이 필요한 호남에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는 강력한 힘이였다. 복음에 반응한 호남인들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 성경은 한국을 뒤흔들고 교회를 세우는 바탕이 되었다.

한국인들의 강렬한 선비적인 기질은 기독교에 대하여 열린 마음은, 특히 기독교 성경에 대하여 마음을 열게 하는 또 다른 요소였다.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상공인도 무관도 아닌 선비숭상이었다. 한국은 학자와 학자를 희망하는 사람들만 득세할 수 있는 나라였다. 유학의 고전들이 한국의 중추를 구성하였다. 그전에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책이 한국을 뒤흔들고 있었다. (Huntley 2009:643)

안기창은 등대선교회 총무로 남장로교 선교부와 함께 사역하였다. 그는 순천지역 선교 100주년을 맞아 선교사들의 사역에 감사하는 시집을 출간하였다.

칠혹같이 어둡고 풀도 꽃도 없는 삭막한 황무지, 이리 때들이 산야를 질주하고 강 건너 까마귀들이 하늘을 날며 모진 발톱으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구한말 시대. 주님의 부르심 받아 가슴 불태우며 십자가를 지고 찾아온 선교사들, 멀리 천대 질병과 싸우면서 가족들을 잃는 슬픔을 딛고 서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농촌 오지 낙도까지 복음 전하며 개화의 불을 밝혀 주신 것 감사함이며. (안기창 2006:6)

안기창은 50여년 동안 남장로교 선교사들과 동역하였다. 그는 남장로교 호남지방 선교역사는 교회를 개척한 역사라고 기록하였다.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50여년 동안 선교사들과 선교의 교제를 나누면서, 1970년도 선교사들이 창립한 등대선교회 총무로 선교사들의 뜨거운 선교의 열을 이어 받아, 선교사들이 철수한 후에도 후속 선교기관으로 그 맥을 이어가며 전국 각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수백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 목사를 양성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서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순천, 매산동에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재현된 주님의 사역들을 보고 듣고 체험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과장 없이 기록하고자 했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이를 인해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기창 2006:7)

### 연구의 배경 (Background)

이 논문 주제인 남장로교 선교와 교회개척은 필자의 삶의 궤적과 함께한다. 필자는 미국 남장로교 허철선(찰스 B 헌트리)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했다. 이 기간은 생애에 걸쳐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하고 있다. 안기창은 허철선 선교사를 기도의 용사라고 노래했다.

허철선 선교사, 인자하고 순한 성격 뜨거운 사명에 불타, 교회를 사랑하는 성령이 충만 기도의 용사, 사무실에서 밤중까지 기도하며, 선교에 헌신하고 충실한 봉사에 보람 느끼고, 신비주의자라고 별명을 받은 기도의 용사여라. (안기창 2006:118)

1893년 1월에 남장로교,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장로교 선교부 공의회’를 결성하였다. 이때 「네비우스 방법론」을 기초로 하여 선교원칙을 정하게 되었다. 원칙에는 10가지 항목이 있었다. 그 가운데, 의료선교는 외래 중심보다는 입원 중심으로 전개시킨다. 지방에서 온 장기 입원환자는 퇴원 후 심방해서 그 지방 전도사와 연결시킨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남장로교 선교원칙에 따라 나는 헌트리 선교사를 도와 장기 입원환자가 퇴원하면, 그들을 심방하여 그 지방 전도사와 연결시키는 사역을 하였다.

허철선(Charles Betts Huntley)은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1965년 9월에 한국에 도착하였다. 한국에 도착한 후,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였다(1965-1967년). 순천선교부에서 1년간 사역한 후에, 1969년부터 광주선교부에서 사역하였다. 사모인 허마르다(Martha Huntley)는 콜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의 버나드 대학(Barnard College)에서 미국학을 전공하였다. 허마르다 선교사는 신문기자 경험이 있어서 글을 잘 썼다. 코리아 타임즈(Korea Times)와 코리아 헤럴드(Korea Herald)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많은 기고문을 남겼다. 허마르다는 한국선교를 시작한 개척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록으로 남겼다.

개척 선교사들은 위대한 일을 시도했고, 많은 일을 성취했다. 우리가 회상해 볼 때, 이들 개척 선교사가 그들의 삶보다 위대하게 보이면 그것은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 때문이며, 그들이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회가 왔을 때 분연히 일어섰던 것이다. (Huntley 2009:957)

허 선교사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시작한 사역에 관한 책을 출간하였다. 허 선교사는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시작한 사역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기술한다. 남장로교회 선교부가 시작한 병원을 통한 선교사역도 계속되고 있다.

개신교 선교사들과 이들을 도왔던 한국인 동역자들이 시작한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학교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특히 개인적인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처음 시작했을 때와 동일한 권능과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2009:957)

나는 남장로교회 선교부 선교원칙에 의하여 광주기독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전도를 하여 결신을 하도록 하고 결신했던 환자들이 퇴원하면 그들을 찾아 지역교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사역을 하였다. 이 사역은 호남신학대학 입학과 동시에 시작하여(1978-1984) 7년 동안 땅끝까지 이르는 거리를 순회하며 사역을 시작하였다.

남장로교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개척을 시작하게 된다. 신학교 재학 중에 필자가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신축 문제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다. 목사님이 떠나면서 교회는 어렵게 되었다. 목사님을 지지했던 젊은층과 목사님의 의견과 대립되었던 어른층이 분리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나는 교회의 중요한 모든 기관을 책임을 지고 있었기에 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젊은층들은 분립해 나가자고 나를 권유했고 어른들은 나의 거취를 주시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교회가 나누어지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기에 요지부동하고 있었다.

어느 날 교회를 떠나신 목사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교회개척을 독려하려 오신 것이다. 다른 젊은이들이 부탁하여 찾아 오신 것을 나중에 알았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내가 책임질 터이니 교회개척을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목사님의 교회개척 권면을 받은 후 나는 주도적인 젊은 사람 7명을 선정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며 결정하기로

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다. 지금 생각하면 아름답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다. 감히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는 분립하였다. 나는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과 작은 지하 공간을 마련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과 함께 광주벤엘교회가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는 장로로 피택되었던 분이 있어서 그 분을 중심으로 어려운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었고 교회가 안정이 되면서 목사님을 모셨다. 교회는 개척 멤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영성을 일깨워 주었다. 교회는 성장했고 36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대형교회가 되었다. 벤엘교회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가 30교회가 넘는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다는 말씀(고전3:6)이 이 교회에서도 적용이 되었다.

필자는 교회를 심는 일에 시작의 사람이었지만 잘 모르고 지내왔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젊은 시절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명하신 사명을 알지 못하는 때에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던 것이다.

나는 신학교을 마치고 1984 전도사로 두 번째 대현교회 개척을 했다. 이 때 한순진 전도사와 함께 사역을 했다. 한순진 전도사는 현재 미국 남침례교 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지금 한국교회를 지원하는 KTEE(Korea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디렉터로 성실하게 사역하고 있다. 개척당시 한 전도사는 어린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순회하며 활동을 하였다. 그의 형 한영진 장로는 그림과 예쁜 글씨를 쓰는 은사가 있어서 어린이를 위한 율동집을 처녀작으로 출판하게 된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한순진 목사는 KTEE 디렉터로 형은 베드로서원 출판사를 운영하게 된다. 출판사 인쇄기계를 구입하고 영업이 되도록 홍보하며 힘껏 도우며 함께했던 시간들은 32년이 지난 지금 감회가 새롭고 의미가 크게 다가온다.

한국에서 한순진 목사의 KTEE 세미나가 있으면 먼 발치에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만 보았지만, 폴리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TEE를 이해하였다. TEE는 랄프윈터 박사가 과테말라 선교지에서 시작했던 것이며, 그 모델로 윌리엄 케리 국제대학이 시작된 근원임을 알고 난 후, TEE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한순진 목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KTEE 한국 이사장을 맡고 있다.

1988년 목사임직을 받고 세 번째 교회개척을 시작하였다. 어려운 사람들이 토굴을 파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이슬을 피하며 기도하는 가족들이 모이는 교회이다. 그들은 어려운 형편이기도 했지만 은사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여 기존교회에 합류하지 못하고 허름한 집을 빌려 모이는 광명교회이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날마다 모이고 기도하는 교회이었기에 교회는 성장하고 변하였다.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로 가사와 표적을 많이 경험했다. 교회를 신축하여 예배당이 마련되었다. 지금은 친구 목사가 담임하고 있다.

나는 농촌교회에서 2년 반 동안 목회한 적이 있다. 그 교회는 친구목사의 고향교회이었다. 친구 목사는 본 교회 예배를 마치면 먼 시골 고향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사연은 역사가 있고 많은 목회자를 배출한 훌륭한 교회인데 장로님 두분이 분쟁하므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친구목사의 권유를 받고 대신 예배인도를 했다. 교회가 염려가 되어 시작한 일이었는데 짧은 시간에 교회는 안정을 찾았다. 교인들의 요청으로 부임을 했고 두 분 장로님은 헌신하는 일에 경쟁을 하였다. 문제가 있던 교회가 평강과 기쁨으로 변하는 경험은 지금도 생각하면 기쁘다. 새로운 교회개척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일 또한 교회개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제 지금 시무하고 있는 예수사랑교회이다. 2001년에 부임을 했다. 2대 담임목사이다. 전임 목사님이 은퇴를 기다리고 있을 때 부임을 한 것이다. 전에는 활동적인 조직교회이었는데 부임할 때는 노인 몇 분과 젊은이라고는 딱 한 가정이었다. 그 부부는 지금 장로 권사로 헌신하고 있다. 폭풍을 맞아 주저앉은 교회를 일으키는 것은 새로 개척하는 교회보다 더 힘들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장소를 이전하여 지금의 교회를 신축하기는 했지만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교회건축을 하다 보니 성도들은 힘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자주적인 성도들의 활동을 기대하고 변혁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 예수사랑교회는 내가 마지막까지 섬겨야 할 목회지로 계시하심에 순종하려 한다. 이제는 교회개척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부족하지만 열심히 교회성장에 힘쓰며 교회개척운동을 전개하려는 것이다.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David Hesselgrave)는 교회개척이 기독교 선교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주님은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가 자기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언하셨다 (마 16:16-18).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교회가 태어나 성장하도록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준비하셨다 (엡 5:25). 지금은 하늘에 계시며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거나 “불러내고 계시고” 교회의 마지막 나타남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엡 5:26-27). 그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이다 (살전 4:13-18; 계 4:6).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후에 생각해 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셨고, 그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마련하셨다 (엡 1:19-23). 성자께서 사명을 위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므로 교회의 형성과 발전을 준비하셨다(행 1:4-8). (Hesselgrave 1980:21-22)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한 교회를 지속하여 섬기지 못하고 아직도 개척교회를 생각한다. 세월이 지난 지금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호남지역을 순회하며 지역교회를 섬겼던 선교사들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교회개척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long time development’ 에 비추어 보면 필자의 개발된 은사는 ‘교회개척’이었고 평생사역으로 정립되어 이 논문의 연구배경이 되었다.

### **연구의 목적(Purpose)**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남장로교 선교사 영향에 의한 교회개척 선교전략에 관한 선교학적 기술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호남지역 교회개척운동에 대한 선교전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연구의 목표(Goals)**

본 논문의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개척을 전략을 이해한다.
2.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교회개척 전략을 이해한다.

3. 미국 남장로교의 호남지역 교회개척 전략을 이해한다.
4. 한국 호남지역 현장적 관점에서 교회개척 전략을 기술한다.

###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교전략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개척교회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국남장로교회 선교부의 개척교회전략을 돌아보고,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개척교회 전략을 숙고하여 오늘과 내일의 교회개척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내게 숙명이다.

필자는 4개의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다. 이번 개척교회 선교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설교자를 더욱 성숙하게 할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의 결과가 남은 개척교회 사역자로서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의 중심 과제(Central Research Issue)**

본 논문은 호남지역 교회개척 전략을 위해 미국 남장로교의 호남지역 교회개척 전략을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선교 목회학적 기술이다.

###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1. 성경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척을 전략은 무엇인가?
2.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척 전략은 무엇인가?
3. 미국 남장로교의 호남지역 교회개척 전략은 무엇인가?
4. 한국 호남지역 현장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척 전략은 무엇인가?

### **연구의 범위(Delimit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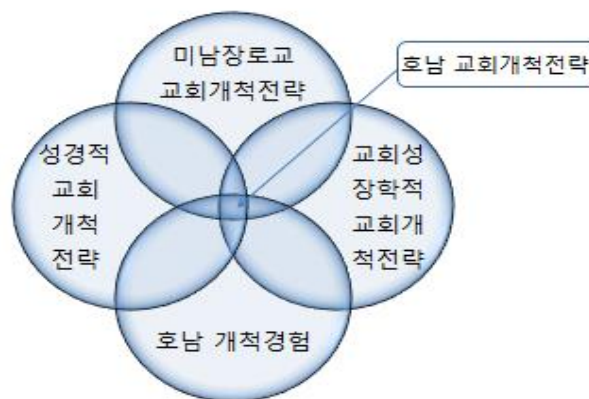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성경에 나타난 교회개척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한다.
2.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보는 교회개척전략으로 한정한다. 교회성장학자들 가운데 도널드 맥가브란, 알란 티켓, 피터 와그너 그리고 벤엡겐의 선교학적 통찰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3. 미국남장로교 선교부의 호남 교회개척전략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그 이외 지역에서 이루어진 교회개척 전략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용한다.

### 연구의 방법(Methodology)

본 논문의 연구 방법론으로 문헌연구 방법론을 사용한다. 핵심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풀러 도서관, 국회도서관, Dbpia, 그리고 Riss를 활용하여 기본학술자료들을 수집할 것이다.

## 호남 교회개척전략



<그림 1>  
호남 교회개척전략

본 논문의 연구 방법론으로 연구자 자신의 미국남장로교 선교부 지역교회 순회 사역 경험과 호남에 4개의 교회를 개척한 현장참여 방법론도 사용할 것이다.

미국남장로교 교회개척전략은 연구논문들과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기술할 것이다. 교회개척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폴러 선교학의 성경적 기초를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다. 교회성장학적 관점은 도널드 맥가브란, 피터 와그너, 그리고 벤엡겐의 선교학적 통찰에서 추론할 것이다.

### **연구 개관(Overview of the Study)**

본 논문은 미국남장로교 선교부의 교회개척 전략에 관한 연구이다. 제1장에서는 본 장은 미국남장로교 선교부의 교회개척 선교전략에 관한 연구의 개관으로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연구 목표들과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얻어진 핵심 연구 주제와 연구 질문들이 본 논문의 범위를 설정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척 전략에 관하여 기술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척 전략에 관하여 기술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남장로교 선교부의 교회개척 전략에 관하여 기술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한국 호남목회 현장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척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술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함으로써 결론을 맺을 것이다.

### **요약(Summary)**

본 장은 미국남장로교 선교부의 교회개척 선교전략에 관한 연구의 개관으로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연구 목표들과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핵심 연구 주제와 연구 질문들로 본 논문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척 전략에 관하여 다루게 될 것이다.

## 제 2 장

### 성경에 나타난 교회개척 전략

본 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개척 전략에 관하여 다룬다. 폴러 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을 발전시킨 교회성장학자들이 가졌던 교회개척에 관한 성경적 배경을 기술한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쿠즈믹은 우주적 교회를 이렇게 설명한다.

우주적인 교회(the Church)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모든 참된 신자들로 구성되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무리이며, 지역교회 (the church)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불어 예배하고, 전도하며, 봉사하는 정당하게 구성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무리이다(Peter Kuzmic 1986:56).

헤셀그레이브(Hesselgarve)는 우주적 교회와 지역교회가 가진 사명을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으로 설명한다.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들의 주된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사람들을 지역교회에 모아 믿음 안에서 그들을 세우고 효과적인 봉사를 하게 하며 세계 각처에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다른 많은 임무들이 있지만 새로운 신자들이 지역교회에 더해지고, 새로운 지역교회들이 우주적인 교회에 더해짐이 없이는, 그리고 기존 교회들이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남이 없이는 그러한 임무들 가운데 어떠한 목표도 실현될 수 없다. (Hesselgarve 1980:20)

교회개척과 성장에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 알란 티펫(Alan Tippett)은 맥가브란과 함께 교회성장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티펫의 공헌은 인류학적 통찰들을 교회성장학에 접목시킨데 있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 아래 교회성장학을 발전시키고 싶었던 티펫은 교회성장학적 관점에 대한 성경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티펫의 “교회성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여 교회성장의 성경적 근거를 밝힌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다. 초대교회의 성장은 숫자적으로 질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행 2:46-47, 16:5). 당시 교회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가정교회 형태가 있었다(고전 16:19, 롬 16:5, 골 4:15, 몬 1:2). 부락공동체적 특성을 가진 교회도 있었다(행 9:35). 고린도와 같은 복합적인 도시인들이 모이는 인간집단적 교회도 있었다(행 18:7-8). 이주민 집단으로 이루어진 교회(롬 16장), 빌립보 등 로마 식민지 전역 대도시에서 있는 다민족 집단교회들도 있었다(Tippett 1979:9).

10년이 조금 넘게 성 바울은 로마 제국의 4개 지방, 곧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아시아에 교회들을 개척하였다. 주후 57년 이전까지 바울은 마치 그의 사역이 그 지역에서 완성된 것처럼 말할 수 있었고,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그의 인도나 지원이 없으면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고 서쪽 끝까지 광범위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Allen 1962:3)

초대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조직을 강화해 나갔다. 지도자들은 안수를 받고(행 14:23, 20:17), 교회사역을 하였다(행 20:28). 성령께서 성장을 주도하셨다(행 2장). 성령은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하도록 교회 내에서 역사하셨다(행 13장). 성령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칭찬하시고 격려하신다. 성령은 여러 교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 말씀하신다(계 2-3장).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선포의 결과이며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맛 본 사람들의 교제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시작이며, 교회의 기초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다”(Kuzmic 1986: 65).

###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의 성경적 개념**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사명을 준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열방에 전하라고 명령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대하여 말한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다.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노래한다(시 72:17). 시편은 이 주제를 반복한다. 주는 온 땅의 왕이시다(47:8). 왕들과 지배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시 2:10-11). 열방의 모든 족속이 경배할 것이다(22:27-28).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구주시며 심판자시며

치리자로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67:3-7).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책임이 있다(96:1-13).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 모든 민족을 향하여

성경은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의 말씀이다. 예언자들은 “기도하는 집”을 “만민을 위한” 집으로 보았다(사 56:7). 열방이 모일 것을 예언하였다(렘 3:17). 여호와와 “만국의 사모하는 바”가 될 것이다(학 2:7). 여호와와 이방인들에게 평화의 근원이 되신다(슥 9:10). 모든 이방인의 빛이 되신다(사 42:6; 60:2-3).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주님이시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설명한다(요 8:12).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지적한다(요 3:16). 주님의 영광스러운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선교적 대사명에서 절정에 이른다(마 28:19).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에 대한 내용이 많다. 티팻(Tippett)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개척과 성장의 성경적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강조한다(1979:21-25).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숫자에 관심을 가지셨다. 숫자가 들어가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 그물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 대해 말씀하셨다(마 13:47-48).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다(막 1:17).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부풀어간다고 하셨다(마 13:33).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모으시는데 관심을 가지셨다. 모으시는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다. 추수하게 된 들만에 관해 말씀하셨다(요 4:35). 자신을 “추수하는 주”라고 말씀하셨다(마 9:38; 눅 10:2).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셋째, 열매를 강조하셨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어야 한다. 가지와 나무의 상호작용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요 15:5-8).

넷째, 양떼를 모우라 하셨다. 잔치의 비유에서는 사람들을 작은 길과 큰 길로 가서 잔치에 불러 모우라 명령하신다(눅 14:21-24). 이 비유를 교회에 적용하면, 주님 안에서의 친교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생명체의 유기적 성장을 강조하셨다. 주님께서는 자연을 사랑하셨다.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시면서 자연에 대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 성장에 대한 유기적 비유로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비유를 하셨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란다고 하셨다(마 13:1-2).

여섯째, 빛에 대해 말씀하셨다. 빛이 어두움을 물리친다 하시며 빛의 비유를 사용하셨다. 자신을 빛이라 하셨다(요 8:12; 9:5).

### 예수님의 비유말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유말씀을 따랐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사용했다. 더욱 발전시켰다. 비유에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빛의 비유를 더 발전시켰다. 바울(고후 4:6), 베드로(벧후 1:19), 그리고 요한도 빛의 비유를 말했다(요일 1:7). 특히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강림을 어둠 속으로 침투하는 빛으로 그리고 있다. 바울도 자신의 선교사명을 빛으로 비유한다(행 26:18). 우리는 빛의 비유를 통해 교회는 빛이 사방으로 퍼져가듯 성장하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갖는다(Tippett 1979:23).

요한은 인간집단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사도들의 공적 증언을 통해 주님께 돌아온 자들의 연합으로 인하여 성장한다고 보았다(요일 1:3).

바울의 비유는 놀랍다. 바울은 로마 제국 내 여러 도시들이 건설되는 것을 보았다. 건축물이 지어지는 그림언어로 교회성장을 설명한다. 교회성장을 집 짓는 일(고전 3:9-11)로 설명하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건물이 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날 것을 설명한다(엡 2:22). 바울은 당시 가족이 늘어나는 형태 가운데 하나인 “양자” 개념을 교회성장에 적용한다. 교회는 양자의 영으로 성장한다고 설명한다(롬 8:15; 엡 1:5).

예수님의 비유에는 교회개척과 성장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모든 비유들은 성장을 설명한다. 비유는 하나도 따로 놀지 않는다. 모두 성장과 확장, 세상에로의 침투를 암시한다. 새 신자들의 연합과 배가, 건물로 지어지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들의 비유는 교회성장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눅 8장) 씨와 밭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씨가 잘 자라는 상황과 잘 자라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추수하는 주인은 잘 자라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 정보의 원리와 계수문제

성경에서 계수(計數)는 나쁜 것인가? 다윗 왕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연이은 승전가를 부른 후에 사탄의 충동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인구 수를 세어보려 했다(대상 21:1). 인구를 계수하다 징계를 받았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교회성장에서 강조하는 통계숫자 등에 대해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다윗이 징계를 받은 것은 숫자를 세는 행위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다윗왕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군사력과 조직과 숫자를 계수함으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윗의 계수는 악한 행동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을 꺾으셨다. 참회한 다윗은 희생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집을 세우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대상 22장).

하나님께서 시내광야에서 이스라엘 인구숫자를 계수하라고 지시하셨다(민 1장). 이스라엘은 가계와 혈통에 따라 편성되었다. 광야에서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백성들을 등록하게 하였다(민 2장). 하나님께서는 모압 광야에서 계수를 명하셨다(민 26장).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차 계수대상들이 불신앙 때문에 기업을 상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1차 때와 같은 방법으로 가계와 혈통에 따라 계수하였다(민 26장).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에서 계수는 필수적이다. 목자가 가진 양은 백 마리였다. 목자 계수를 통해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여인은 계수를 통해 은전 한

있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찾아나서는 행동은 정확한 계수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찾아 나서야 찾는 기쁨을 얻게 된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있다(요 10:3).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다. 그물 가득 고기가 올라왔다. 성경은 153마리였다고 숫자를 기록했다(요 2:1-13; 21:11). 어부는 고기숫자를 센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눅 5:8-10). 이 과정을 통하여 베드로는 “그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다(요 21:12).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 교회성장 연구에서 강조하는 숫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교회성장에 관한 통계 숫자들이 자신이나 교단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다윗 왕의 경우처럼 정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성장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계숫자는 주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통계숫자들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사용한다(Tippett 1979:30).

###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충직성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신다.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충직성이 함께 작용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복종이라는 주제는 선교적으로 반복 논의되어 왔다. 티펫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인간의 복종이 약화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인간의 충직성을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성경적이라고 주장한다. (Tippett 1979:31)

바울은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았다(고전 3:9, 고후6:1).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 동역자 개념은 동역자의 역할은 책임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교회개척을 위해 자신을 드렸다.

바울의 주된 사명은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개종하고 교회들이 설립되었을 때 완수 되었다. 의심할 나위 없이 바울은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을 배가 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는 은사가 있었을 뿐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의 많은 후배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초지일관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는 넘치는

에너지와 비범한 역량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드렸다.  
(Hesselgrave 1980:29-30)

박기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들이 개척되었다고 설명한다.

누가는 우리에게 제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교회들이 개척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행 9:31). 바울과 실라가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이전에 세워진 교회들을 강화시킬 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였다"(행16:5). (박기호 2016:22)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열 그나 비유가 있다(눅 9장).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있다(마 2:14-30).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주님의 평가는 은사를 잘 활용하고 성실하게 사용하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은사에 대한 무책임은 심판의 원인이 된다(마 25장).

예수님의 비유는 사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포도원의 일꾼을 열심히 일해야 한다(눅 13장).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물을 던져야 한다(마 4장). 잔치 집의 하인들은 하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마 22장).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 충직하게 일해야 한다.

바울은 건축자 비유를 사용한다. "사람마다 어떻게 집을 세울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전 3장). 건축자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병사는 충성해야 한다(엡 6장). 운동선수는 달려야 한다. 농부는 땀 흘려 일하고 추수해야 한다. 목자는 양을 먹여야 한다(벧전 5장).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에 충직해야 한다.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선교사역은 기계적인 일이 아니라 인격적인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지식을 책임있게 사용해야 한다.  
(Tippett 1979:35)

### 회심성장의 원리

성경은 회심을 강조한다.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은 회심성장을 토대로 한다. 교회성장은 회심과 함께 일어난다. 교회성장은 회심성장을 강조한다. 새로운 결신자 숫자를 기록한 통계에 관심을 갖는다.

회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신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적 측면이다. 회심은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보장하신다(롬 8:14-16; 고전 2:9-14; 엡 2:4-5).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신다(행 2:47).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구원에는 인간적 측면도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섬기는 결단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 결정 과정에는 인간의 의지적 측면이 작용한다(Tippett 1979:33).

회심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다(행 9:35).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설교했다(행 3:19). 안디옥에서 구브로 사람 사람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행 11:21).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는 것은 인간의지의 행위이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외침으로 시작되었다(마 3:2; 4:17; 막 1:15). “회개하라”는 제자들의 첫 번째 설교제목이었다(막 6:12). 베드로는 회개를 강조했다(행 2:38).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눅15장). 회개도 인간 의지적 선택이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된다(마 10:33; 11:20-24; 눅 11:29; 12:9; 13:3-5).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였다(막 5:36; 요9:35-38).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은 주님께 나와 그의 양이 되었다(요 10:26-27).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요 5:24).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인종분포가 다양해졌다. 초대교회는(행 2:5-11) 유대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로마에서 온 나그네, 구레네인, 아라비아인 등 다양한 인종적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 고린도와 이고니온 전도의 결신자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이었다(행 14:1; 18:4).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집단에서 결신자들이 나타났다.

이들 집단들 중에서 특정 인간집단 공동체가 회심하는 경우를 사도행전은 언급한다. 빌립의 설교로 사마리아 인간집단운동이 시작되었다(행 8장).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말 하는 것을 들었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다. 그들은 설교말씀을 믿고 회심하였다. 빌립보에서는 가족집단이 믿고 회개하였다(행 16:32). 간수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교회는 회심성장을 통해 자란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옴으로 성장한다. 그러므로 회심을 위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한다. 믿고 주님께 돌아와 제자가 되고 교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교인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숫자가 더 중요하다. 회심성장이 핵심이다. (1979:44)

### 전도계획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성장을 기록한다. “날마다 믿는 이가 교회에 더했다”(행 2:46-47). 교회의 수효가 증가했다(행 16:5). 주님의 겨자씨 비유는 지적한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큰 나무가 된다(마 13장).

성장하는 교회는 전도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도를 위한 봉사활동도 필요하다. 그러나 봉사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이 전달되어야 한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Tippett 1979:47). 계획을 바로 세우지 못해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면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눅 14:28-29).

### 제자 우선의 원칙

맥가브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해야 한다(마 28장). 제자 우선의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양적 성장만 강조하고 질적 성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지적한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벧후 3:18). 말씀 가운데 자라야 한다(벧전 2:2). 신령한 돌로 연결된 건물이 되어야 한다(벧전 2:4-5).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자라야 한다(골 2:7). 그리스도



안에서 완숙하게 자라야 한다(엡4:15).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한다(살후 1:3). 서로 연결되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야 한다(엡 2:21-22).

제자삼기와 교육하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제자를 만들고 말씀을 교육하는 성장이 계속되어야 한다(살전 5:23). 하지만 제자삼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누구든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그분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 **교회개혁과 교회성장의 역학**

성경은 교회개혁과 교회성장의 역학을 보여준다. 복음은 수용자의 사회학적 구조를 중시하여 전달되었다. 복음이 보편적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적 구조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은 역사에 나타난 모든 민족, 나라들 가운데, 모든 형태의 집단들 가운데 의미 있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족장, 군주사회, 도시 사회 등으로 다양한 사회구조들 가운데 구속사가 전개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족장체제를 가진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출 20:2-5).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 부름을 받았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다(사 43장).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했다. 요나는 앗수르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 그들은 자신의 사회체제를 바꾸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욥 3장).

스바냐서는 모든 이방인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이방의 모든 섬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고 말한다(슥2:11). 모든 민족은 자기가 가진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Tippett 1979:54)

예수님께서서는 유대민족에 속한 특정 가문에 오셨다. 갈릴리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다(마 13:55; 막 6:3). 갈릴리 사투리를 쓰셨다. 지방 사투리 발음이 특이해서 다른 지방 사람들이 놀리기도 했다(막 14:70). 예수님께서서는 시골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 불렸다(마 21:10-11).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모든 가정과 촌락으로 보내셨다(눅 8:1; 10:5-9). 모든 민족을 제자삼으라는 선교적 대사명을 주셨다(마 28:19).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인간집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1979:57).

## 집단개종에 의한 교회개척과 성장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은 집단개종을 강조한다. 교회성장학파들은 회심을 강조한다. 회심에는 개인적 회심과 집단적 회심이 있다. 개인주의적인 문화배경을 가진 사역자는 집단개종의 중요성을 관과 할 수 있다. 성령은 사람들을 가족, 집단, 종족단위로 회개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집단에 속한 다수의 개개인이 집단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맥가브란(McGavran)은 집단개종에 관심을 가졌다. 집단정신과 집단결정을 집단개종의 중요한 역학으로 보았다.

집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단결해서 반란자를 아무런 협의없이, 그리고 친구들도 없이 혼자만 쫓아낸다. 개인은 자신을 독자적인 단위로 간주하지 않으며 집단의 한 부분으로 본다. 그의 사업활동, 자녀들의 결혼, 그의 개인적인 문제, 또는 아내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은 주로 집단적 사고에 의해서 해결된다. 이 집단 정신이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로 맺어질 때 인간집단들은 기독교인이 된다. (McGavran 1993:31)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은 핵가족에서 시작하여 가문, 혈족까지 확대된 가족 공동체로 형성되었다. 이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족장의 리더십을 따라 단결하여 살아갔다(신 1:13-18).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신앙적 단결력을 상실하고 이세벨 왕후의 강압적인 리더십을 따라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수의 개인적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왕상 18:37-39). 하나님께서는 인간집단의 집단개종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Tippett 1979:59).

사도행전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의 집단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행 1:13-14; 2:1,48; 8:5-8). 개개인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70문도에게 선교명령을 내리실 때(눅 10:5-11), 각 마을과 가정을 찾아가 그들로 복음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했다. 부활 후에 나타나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 하셨다(마 28:19). 여기서 족속은 인간집단에 해당한다.

사도행전에는 집단개종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인간집단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룻다와 사론의 경우이다(행 9:35). 소문이 읍바에 퍼져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행 9:42).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방종교를 버리고 개종하는 부흥운동은 모든 족속을 제자삼는 일에 있어서 다수의 개인들이 내린 집단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성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신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1979:60).

###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개종

개종은 문화 속에서 일어난다. 문화적 옷을 입고 있다. 교회성장학은 사람들이 개종을 통해 새 사람이 되지만, 그가 속한 특정 문화 속에서 개종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Tippett 1979:62). 문화적 회심보다 신앙적 회심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신앙을 갖기 위해 자기가 살아가던 문화에서 떠나 선교사가 가진 문화를 따라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새 신자는 외국인화가 되어 그가 속했던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결신자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 사회구조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했다(요 4:29-39). 하지만 그 여인에게 수가성을 떠나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다. 수가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주님과 수가성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다리가 되게 했다. 여인은 간증을 통해 수가성 사람들에게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소개했다. 이 사건은 개인전도의 실례로 보아서는 안 된다. 수가성에 사는 인간집단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해석해야 한다(1979:65).

예루살렘 공의회는 분명했다(행 15:1-35).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떤 유대교 의식을 준수해야 하느냐? 이 결정에 베드로의 경험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행 11장; 15:8-11).

성경은 교회개혁과 성장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교회성장 이론은 성경적이다. 개종은 특정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결신자들은 자기 자신이 속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선교사들은 다른 문화의 기독교 형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1979:68).

### 수용성 원리

수용성이 중요하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메시지의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듣고 생명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사망의 길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중도를 택할 수는 없다.

맥가브란(McGavran)은 수용성 원리를 예수님의 밭에 대한 말씀으로 설명한다.

우리 주님은 씨를 뿌린 후 수확할 수 있도록, 곡식이 익은 밭에 대해 말씀하셨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때때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밭은 과거보다 씨를 뿌린 후 추수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드문 것 같다. 하지만 때때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신속히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성장하는 회중들에 참여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McGavran 1987:367)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강요한다(신 30장).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두 갈래 길에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권한다. 모세의 메시지는 여호수아를 통해 반복된다(수 24장).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을 강조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선지자 전통에 따라 백성들에게 선택을 강조한다(요 4장). 좁은 길과 넓은 길 가운데 선택하라고 하셨다. 영생에 이르는 양식에 대해 말씀하셨다.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언제나 결단을 촉구했다. 예수님의 복음을 수용하는 것을 기뻐했고 거부당하는 것을 슬퍼했다(마 19:22-24; 막 10:21-23; 요 6:64).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수용하는 곳에 머물며 전도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지방에서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하셨다(눅 9:5). 제자들과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했다(행 13:51).

사도들은 복음을 수용하라고 호소했다(행 2:38; 3:26; 16:31). 계시록은 어린 양 앞에 선 구원받은 여러 족속들을 보여준다.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계 7:10)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래한다.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의 미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복음전달자는 청자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경고해야한다”(Tippett 1979:74).

### 수확신학

수확신학이 핵심이다. 교회성장학을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소명은 충성에 있지 수확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충성과 수확(결과)을 다른 개념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충성과 수확은 다른 개념이 아니다. 충성은 곧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Tippett 1979:75).

달란트 비유가 보여준다(마 25:21,23; 눅 19:17). 청지기 비유도 의미가 분명하다(마 24:45; 눅 12:42). 성취된 충성의 결과가 신앙의 증거가 된다(약 2:17,18; 빌 3:14).

청지기 개념이 이 주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청지기 개념은 두 헬라어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집안 관리자와 감독자, 가정교사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조합되어 있다. 집안 관리자는 하인들의 일을 보살핀다(눅 12:42; 16장). 감독자, 가정교사, 그리고 대리인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하는 역할을 한다(마 20:8). 청지기 개념은 결과를 위한 기능적 개념이다. 청지기가 한 일의 결과는 주인이 평가한다. 수확이 없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사임하게 될 것이다(마 25:21-26; 눅 16:12; 19:17-23; 고전 4:1-4). 교회성장이 주장하는 수확신학은 이 청지기가 가져야 할 충성을 강조한다(1979:76).

예수님의 비유말씀은 핵심이 선명하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눅 12장)에서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 외국으로 떠난 주인은 수확기가 되어 그 종을 보냈다. 얼마간의 소출을 받기 원했다. 악한 농부는 종을毆박하고 상속자를

죽이자라고 했다. 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이 포도원 농부로써 충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마 21:33-45; 막 12:1-9; 눅 20:9-19).

누가복음 13장에 나타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는 열매 없음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마 21:18-22; 막 11:12-14 참조).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이나 열매가 없었다.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명령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과원지기는 1년만 기회를 달라고 간청한다. 주인을 그렇게 하기로 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신다.

예수님의 비유말씀은 복음전도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청지기인 우리는 결과를 위해 결과를 기대하며 일한다. 수확이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활동을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진 기술, 지식, 그리고 경험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가지를 잘라야 한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다 뽑아 버리고 소출이 높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 좋은 수확을 위해 우리의 농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계 2:23). 주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1979:78).

### 하나님의 다리

맥가브란(McGavran)은 초대교회 기독교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그는 바울의 복음전도에 응답했던 인간집단들이 바로 하나님의 다리(49페이지 용어 정의 참조)였다고 지적했다. 맥가브란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고, 그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복음에 응답했던 인간집단에 주목하고 있다. 비시디아에서 일어났던 일(행 13:14)이 바로 그러하다( McGavran 1993:55).

이방인들에 관한 한 그의 복음전도는 주로 ‘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의 회당공동체는 히브리 족속의 유대교도들, 그리스 종족의 유대교도들, 그리고 믿기는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바울이 알고 사용했던 이방인들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다리였다. (1993:57)

### 교회개혁과 교회성장의 종말론적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종말론적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다. 성경말씀을 통해 언약을 주셨다. 성경은 언약,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행 1:4).

히브리 기자는 “언약의 기업”(6:12), “약속을 받는 일”(10:36),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언약”(9:15)에 대해 소개한다. 바울은 이방인이 복음을 수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의 분깃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되었다고 선언한다(엡 3:6). 구약에 소개된 아브라함의 언약과 신앙은 하나의 모범으로 신약까지 연결된다(롬 4장).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유효하다(갈 3:14, 22).

Tippett은 신약에 나타난 약속의 주제를 네 가지로 구분한다(Tippett 1979:141-143).

첫째,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약속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성취되었다. 누가는 성육신과 부활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설명한다(행 12:23; 13:32-33).

둘째,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약속과 연관시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딤후 1:1). 야고보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이 된다고 말한다(약 1:12; 2:5).

셋째,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다. 오순절 날 약속이 성취되었다(눅 24:49; 행 1:4; 2:33).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요 14:16). 이 약속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저희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약속”이다.

넷째, 종말론적 완성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 베드로는 약속에 관해 말한다. “의인들이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벧후 3:13).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이라고 한다(행 26:6).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을 인수하게 한다. 성경의

약속들은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참여자로 포함시키는 데까지 이른다(엡 3:6). 성령도 “먼 곳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허락된다(1979:145).

### 종말론적 완성

종말에 완성된다.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은 종말의 순간에 완전함을 입는다.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는 이 땅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고 경험할 수 없었던 온전함을 입게 된다(계 7; 21; 21장). 분열은 사라지고 주님의 임재가 주는 희열은 표현할 수 없다. 티벳은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 보여주는 네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Tippett 1979:146-150)..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계 22:4; 고전 13:12참조). 모든 민족, 족속, 백성들은 자신의 실재를 유지하면서 주 앞에서 하나가 된다(계 7:9; 21:24,26).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계21:4).

둘째, 교회에게는 장차 올 메시아 왕국에 관한 중요한 책임이 주어졌다.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계시록에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심판에 대한 환상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의해 증거된다(22:16). 교회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다. 교회는 생명과 사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경고를 받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이 선택에 대해 반응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며 이 시대 지상에 있는 교회성장에 중요한 메시지이다(1970:78).

셋째, 영광 중에 나타난 교회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역사의 종말은 신부를 맞는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될 것이다(계 21:2,9; 22:17).

넷째, 장차 나타날 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경험을 함께 공유한다(계 7:13-14). 개인과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역사의 승리자인 구주라고 함께 고백한다. 함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1979:79).

교회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도다(계 22:17).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교적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1979:150)

### 요약

본 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개척 전략에 관하여 다루었다. 풀러 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을 발전시킨 교회성장학자들이 가졌던 교회개척에 관한 성경적 배경을 기술하였다.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을 위한 성경적 배경으로, 모든 민족, 예수님의 비유, 정보와 계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충정, 전도계획, 제자우선, 집단개종,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개종, 수용성, 수확신학, 하나님의 다리와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의 종말론적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교회성장학에 나타난 교회개척 전략에 관하여 맥가브란 학파를 중심으로 기술할 것이다.

### 제 3 장

#### 교회성장학에 나타난 교회개혁 전략

본 장에서는 교회성장학에 나타난 교회개혁과 교회성장 전략에 관하여 기술한다. 교회성장학의 아버지인 맥가브란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회개혁전략을 전개할 것이다.

#### 맥가브란(McGavran)의 신학적 유산

맥가브란 박사의 신학은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미국 개척자에게서 동시에 발전된 회복운동인 그리스도의 제자운동(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이 가장 강조한 핵심은 개혁이었다.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편협하게 굳어진 것들에 대한 개혁에 있었다(Glasser 1976:22).

우리가 맥가브란 박사의 교회성장 운동에 공허한 신학적 이론을 생각해 보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신학적 유산에 대해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맥가브란은 교단 종파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기꺼이 영접한다. 그들의 신앙적 전통에는 상관하는 않는다. 그는 교회의 지체에서 고립되는 것을 거부한다. (1976:26)

맥가브란(McGavran)은 인도에서 미션스쿨의 책임자로 있었다. 그는 힌두교 세계관을 가진 학생들이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신앙관이 형성되어 가는가를 연구하였다(1935). 기독교가 어떻게 전통문화를 변혁시켜 가는지를 문명충돌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1974). 맥가브란은 선교현장 경험을 통해 성경과 십자가가 핵심임을 깨달았다.

#### 성경과 십자가

맥가브란은 예일대와 콜롬비아대를 다닐 때, 자유주의적 성경관을 가진 교수들로부터 배웠다. 그 결과 그의 성경관은 확실하지 않았다. 1932년 맥가브란이 교단

선교부 현지대표가 되었을 때 충격적인 경험을 하였다. 처음 선교부 대표가 된 맥가브란이 자불뿌르(Jubbulpore) 본부에서 성경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성경공부를 하는 현지인들에게 물었다. “오늘처럼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대할 때,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청중들이 즉시 대답했다. “성경본문에서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무엇인가?” 맥가브란은 충격을 받았다. 그럴 수는 없다고 다짐했다.

맥가브란 박사는 교회란 언제나 십자가와 성경의 진리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열정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개혁자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그들의 양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굳게 매어 놓는 것에 대해 존경을 표했다. 그러나 그의 판단에 의하면 개혁자들은 하나님을 다만 구원의 창시자로만 높이고 그들이 성경의 진리를 그들의 교회 안에서만 맞는 것으로 제한시키며 다만 제도상의 교회에 국한시키는 것에 대해 경계를 했다. 그는 위대한 성경진리가 길들여져서는(교단의 필요에 맞게 각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Glasser 1976:27)

맥가브란은 성경관을 확실하게 정립하였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다.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다”(McGavran 1988:56).

### 신학적 방법

맥가브란은 조직신학자가 아니다. 그는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그도 침묵하기를 원하였다. 우리는 맥가브란에게서 전통적인 신학자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는 다만 교회의 책임은 성경적 우선권을 지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

맥가브란의 입장의 핵심에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심오한 확신이 있다. 성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구세주로서 믿어 그의 제자가 되고 그분 교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실이 영원한 차이를 결정한다고 믿었다. (Gibbs 1994:22)

맥가브란은 확신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신자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신학은 벌카우어(G. C. Berkouwer)의 공동 관계의 원칙(Principle of co-relationship)의 모델에 따른

것이다. 벨카우어는 공허한 신학 내용은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Glasser 1981:59).

### 하나님의 복음

맥가브란(McGavran)은 복음을 강조한다. “오늘날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1987:29).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들은 다양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장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거듭 거듭 그리스도의 사랑과 만나게 한다. 그것은 그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신 사랑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빈 무덤에 관한 사건은 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아니다. 클라이막스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다. 그것은 이것은 순종을 필요로 한다. (Glasser 1981:67)

### 인류학적 통찰

맥가브란은(McGavran) 사회학적 관점에서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을 연구하였다. 그가 알란 티벳을 만난 후, 인류학적 통찰을 갖게 되었다. 맥가브란은 티벳의 인류학적 통찰을 통하여 선교학을 발전시켰다.

티벳의 “솔로몬 군도 기독교”는 인류학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의 광산이다. 솔로몬 군도 내의 여러 교단들이 어떻게 성장하였고, 어떻게 성장을 멈추었고, 어떻게 번성하였고, 어떻게 위축되었고, 어떻게 진정한 혹은 명목적인 기독교인이 되었고,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였는지, 또는 기독교 신앙을 왜 그들 친지들에게조차도 전파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들을 기술한다. (1987:197)

### 전도신학(Theology of Evangelism)

교회성장학은 효과적인 전도를 강조하는 전도신학이다. “교회성장은 기본적으로 전도를 강조하는 신학적 입장이다”(1987:34).

우리는 사도행전 4:12, 요한복음 14:6 말씀이 참되다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필수적 요소라고 믿는다. 교회성장의 기본

입장은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다. 그러나 복잡한 신학이 아니다. 전도의 긴박성과 권위를 당신의 신학 안에 체계화하여 당신의 신학을 완성하라. 교회성장신학을 당신 자신의 현장 언어로 표현하라. (1987:35)

교회성장은 “복합적 충성”(The Complex Faithfulness) 이다. “양적인 교회성장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1987:599). 에디 깁스(Eddie Gibbs)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성장하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하는 것의 근본적인 성격을 인식하고 그에게 결정적으로 헌신할 것을 필요로 한다”(1994:191). 복음전도가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행위이며 인간이 실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의 도래는 자동적이지 않다. 그것은 백성들의 응답을 요구한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사실과 약속으로써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고 그것의 성격을 설명하시며 반응을 요구하셨다. (1994:58)

### **교회성장학적 안목**

교회와 교회성장을 이해하고,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선교현장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교회성장학적 안목은 선교현장을 보면서 질문한다. 교회는 어디서 성장하고 있는가? Why churches are growing?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사회구조는 어떠한가? 특히, “사회구조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것은 아무리 과대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McGavran 1987:335).

맥가브란의 제자이며, 영국 교회성장학자인 깁스(Gibbs)는 탁월한 교수이다. 그는 영국에도 교회성장학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가 보아온 바 문화는 삶의 전체에 스며들어오고 사람들은 메시지, 그들이 결정한 방법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신념과 가치의 주변에 세운 사회적이며 제도적인 구조물들에 속하는 의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역들에서 문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교회성장운동에 대한 통찰력은 최근 수십 년간에 그것의 선교 사역에 대한 교회의 이해가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이해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와 같이 영국에 있는 교회의 선교에도 관계된다.(Gibbs 1994:118)

## 인간집단 원리

맥가브란(McGavran)은 강조한다. 인간집단에 주목하라! 인간집단을 분별하고 그에 적합한 효과적인 전도계획을 세우라! 무엇보다 인간집단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맥가브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조각들이 모여 이루어진 모자이크와 같으며, 각 조각은 다른 조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고 불쾌하게 보이는 각기 나뉠대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McGavran 1987:337).

세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될 수 있으려면,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는 모자이크의 대부분의 조각들에서 생명력을 지닌 회중들의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일은 개인구원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인류라는 이 놀라운 모자이크의 모든 조각에서 교회들이 개척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성장의 도전이다. (1987:128)

숨겨진 민족들이라는 용어는 매력적인 용어이다. 이 용어는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는 인류의 다수에 주목한다(1987:125). 이 놀라운 모자이크에서 수많은 단편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는 상당히 다양하다(1987:116).

아서 글라서(Glasser) 박사는 지적한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맥가브란 박사의 입장에서 본 교회성장학의 신학적이며 방법론적인 기본 원칙을 확실하게 다루었다. 우리는 맥가브란 박사가 학문적 논쟁을 통하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제된 19세기 선교전략을 포기하는 지혜로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들었다. 우리는 맥가브란 박사가 인간집단 운동(People Movement) 전략이 세계 선교에 보다 적합한 방법이라는 주장을 들었다. (Glasser 1981:83)

랄프 윈터는 전도를 E-0, E-1, E-2, E-3의 네 종류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그가, 인류가 모자이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은 선교학에 대한 그의 탁월한 공헌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McGavran 1987:111).

## 효과적 전도 원리

교회성장은 효과적 전도(Effective evangelism)에 관한 연구이다. 맥가브란(McGavran)은 전도 방법론에 관하여 질문한다. 이 방법은 효과적인가?

교회성장의 정체는 잘못된 방법에 기인된 것일 수도 있다. 때때로 헛수고는 습관적인 것이며, 그 원인은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애착을 느낀

나머지, 복음을 수용하기 갈망하는 사람들을 소홀하게 하면서 양들이 없는 산골짜기를 기웃거리고 다니는 데 있다. 때때로 그 원인은 수십 년 동안 효과가 없음이 입증된 방법을 계속 고수하는 데 있기도 하며. 많은 교회들과 선교회들은 그러한 원인들을 제거할 때 교회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McGavran 1987:90-91)

### 수용성 원리

맥가브란은 수용성(receptivity principle)에 주목하였다. 교회개척과 성장에는 수용성 요소가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지구의 모든 대륙에서 점점 증가해 가고 있는 복음에 대해 수용적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증가시키는 일이다”(McGavran 1987:102). 수용성에 주목하라! 수용성을 연구하라! 수용성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우리가 “교회성장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전도를 통해 교회성장을 이룩하려면 우리는 수용성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만 한다”(1987:371).

맥가브란은 수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주장한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과거보다 복음에 대해 수용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다. 일리노이 주와 캐나다에는 100년 전보다 복음에 대해 수용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많은 주와 지역의 일반 국민들은 과거보다 그리스도에 대해 호의적이며, 회심에 대해 보다 더 개방적이다. (1987:95)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수용성에서 하나님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햇빛과 비를 통해, 그의 섭리와 성령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 수용적이 되게 하였다(1987:95).

수용성에 차이를 가져다 주는 공동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1987:371-382). “수용성이 효과적인 전도방법을 결정한다”(1987:394).

1. 새로운 이주민들: 최근에 이사 왔으며,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났으나 아직 새로운 생활방식이 굳어지지 않은 사람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있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주목하라.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 이사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생활의 여러 영역의 변화에 대하여 보다 열려져 있을 것 같다”(Gibbs 1994:187)

2.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 참전 군인들, 노동자로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수용적이다.

3. 피정복자들은 수용성이 높다.

4.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교회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McGavran 1987:375).

5. 통제로부터의 해방: 통제의 완화는 수용성을 촉진시킨다.

6. 사회화(aculturation): 다른 사회들과의 접촉을 통해 문화변혁이 일어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역동적 과정이다.

수용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적인 과제는 수용성을 발견하고, 수용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들의 이웃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러한 수용성에 맞게 선교방법, 제도 및 직원들을 조정하는 것이다”(1987:395).

### 제자 우선의 원리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교육보다, 불신자를 전도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discipling and perfecting).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하기’ 과정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분은 인간집단개종을 위한 맥가브란의 선교전략이다.

맥가브란이 생각하는 선교의 목표는 제자삼기이다. “교회성장의 장기적 목표는 모든 민족(*panta ta ethne*)을 제자삼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생수의 강이 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민족에게 신속하고 거침없이 흐르게 되는 것이다”(McGavran 1987:9).

맥가브란에 의하면, 전도가 기독교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sup>1</sup>

나는 전문가로서 말한다. 나의 전공은 교육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인도에서 교육을 담당하였다. 나는 전문적인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전도를 보조하는 일, 즉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대부분의 시간을 교육하는 일에 보내고 있는 선교사의 관점에서 교회성장에 접근하고 있다.

---

<sup>1</sup> 맥가브란의 특별한 점은 이것이다. 교육학 전공자는 교육을 우선시한다. 맥가브란은 교육학을 전공하였다. 하지만 제자삼기, 즉 전도를 우선시하였다. 여기서 맥가브란은 교육보다 제자삼기를 우선순위로 제시한다.



전문가의 가장 큰 시험은 어떤 다른 사람이 사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1987:98)

제자가 된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 성경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지도록 훈련해야 한다. 제자들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맥가브란은 제자삼기의 다음 단계로 “perfecting”의 단계가 있다고 기술한다.

맥가브란이 정의하는 “perfecting”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1. Perfecting은 제자화 다음 단계이다.
2. Perfecting 단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 진리, 사랑, 그리고 자비가 나타나 윤리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sup>2</sup>
3. Perfecting은 인간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를 수반한다. 사회적, 인종적, 그리고 정치적 정의가 실현되는 단계를 말한다.
4. Perfecting은 그리스도와 생명력 넘치는 개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을 받아가는 단계이다.
5. Perfecting은 차세대(subsequent generations) 가운데 일어나는 개인 개종을 강조한다.
6. Perfecting은 중단없이 계속되는 과정이다(McGavran 1980:174).

Spradlin은 맥가브란의 Perfecting 개념이 1971년을 기점으로 집단중심적 개념에서 개인주의적 개념으로 변하였다고 지적하였다(Spradlin 2012:46). 1971년 이전에는 집단개종을 염두에 둔 인간사회집단을 기술하는 용어로 perfecting을 사용하였지만, 1971년 이후에는 미국 개인주의 영향을 받아 개인적인 성장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McGavran 1980:266-268). 당시 풀러 선교대학원에는 미국화 바람이 불고 있었다. 맥가브란은 미국 제자들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Perfecting을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하고, 그들의 삶이 성경을 앎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과 더 깊은 개인적 관계를 맺게 하는 것”(McGavran and Arn 1973:80)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

<sup>2</sup> 이 단계적 변화는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인격적, 윤리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말한다.

## 동질집단 원리

맥가브란은 동질집단(homogeneous unit principle)을 강조한다. 교회성장에서 문화적 동질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학적 통찰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인종적, 언어적, 계급적 장벽을 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기 원한다”(McGavran 1987:337).

교회사의 처음 15년 동안에 거의 모든 신자들은 유대공동체의 성원들로 남아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이 되었다. 1900여년 전에 교회는 유대인들이 인종적인 장벽을 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대인 신분사회는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였다. 그것은 강력한 통제력을 가졌다. (1987:347)

맥가브란은 초대 회당공동체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이 동질성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교회가 지중해 주변에 있는 회당 공동체에서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최초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자들은 메시아를 열렬히 대망하고 있었던 독실한 유대인들이었다. 회당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된 이들은 인종적, 계급적 장벽들을 헐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 (1987:348)

동질집단은 교회개척과 성장에 사회조직을 중요한 요소로 인정한다. 이것은 인도에서 선교하였던 맥가브란에게 중요한 현장경험이었다.

동질집단 원리는 뚜렷한 계급이나 인종적 장벽에 부딪치게 될 때 쉽게 식별된다. 피부색, 신분, 소득, 정결함, 교육 등에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설명될 때에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이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에 들어가기를 더 좋아한다. (1987:343)

동질집단으로 구성된 교회보다 혼합집단으로 구성된 교회는 성장이 더딘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여러 동질집단이 혼합되어 있는 교회들은 회심에 의해서 빠르게 성장하지 않고 있다. 만일 교회들이 증가하면, 교회들은 이동성장에 의해서 성장할 것이다”(1987:366). 그러므로 동질집단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동질집단은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의 어떤 특징을 가지는 하나의 그룹이다. 그 동질성은 아마도 정치적인 단위, 문화 또는 언어, 부족 또는 카스트 또는 종족 하부 단위에 의해서 표현될 것이다. 서구 사회 안에서 그것은 사회, 경제적인 그룹, 특별히 채용된 사람들 또는 젊은 사람들의 역문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그들이 서로서로 편안함을 느끼도록 어떤 특별한 삶의 양식, 언어, 그리고 전제들을

공유하는 그룹들이다. 각각은 자신의 행동양식을 발전시킨다. (Gibbs 1994:119)

### 인간집단 운동

인간집단 운동(People Movement)은 맥가브란이 인도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부족 또는 카스트 제도권 아래 있는 인간집단을 연구하고 그들이 비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는 첫 번째 단계인 집단개종운동의 역학을 기술한다(McGavran 1987:485).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교회성장에 대한 확실한 이해는 인간집단 운동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인간집단 운동은 기독교 선교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회사와 선교확장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집단들을 제자화하는 것을 인간집단 운동 패턴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1987:486)

인간집단 운동에서 인간집단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인간집단은 결혼이나 가까운 인간관계가 특정 사회집단 내에서만 일어나는 부족, 종족, 혈족, 카스트 또는 특정 동질집단을 의미한다”(1987:486). “인간집단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집단을 의미한다”(1987:487).

인간집단 운동이란 무엇인가?

인간집단 운동은 모두 동일 부족집단 출신인 다수의 개인들(5명이든 500명이든)의 공동 결단으로부터 초래된다. 이런 운동은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이동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그들의 비기독교적인 친척들과 옛날과 다름없는 접촉을 유지하게 하며, 그 부족집단의 다른 그룹들이 여러 해가 지나 유사한 결단을 하게하고 그리하여 오직 그 부족집단의 성원으로 이루어진 기독교 교회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987:488)

인간집단 운동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공동체들은 사회적인 분산 없이, 동일 가족 성원들 사이의 뼈아픈 이별 없이 그들의 일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독교에 입문한다. 이 결과 형성되는 회중들은 지도자 및 가족적 충성을 완벽하게 갖춘 사회구조를 소유한다.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데 익숙한 한 종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집단 운동 교회들은 보다 안정적이며 목사와 선교사에 덜 의존적이며 박해아래 더 잘 견디어 낸다. (1987:491)

신앙생활에서 사회적 응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앙적 확신은 사회적 응집력에 의해 지원된다. 훈련 역시 효율적이며 토착적이 된다. 공동체가 가진 죄악과 나약함은 공동체적 규칙을 정하므로 어려움이 없이 제거할 수 있다”(1987:491).

맥가브란(McGavran)이 저술한 “하나님의 선교전략(*Bridges of God*)의 3장은 신약에 나타난 인간집단 운동에 대해 설명한다. 신약은 인간집단 운동의 좋은 실례를 보여준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실례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인도하셔서 인간집단 운동을 통해 초대교회를 성장하게 하셨다면, 인간집단 운동 자체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과, 인간집단 운동을 통한 교회성장은 정당하고 성경적이라는 것이다. (1987:508)

맥가브란이 기술하는 인간집단 운동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다.

룻다식 집단운동: 룻다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공동체 전체가 기독교인이 된다.

루스드라식 집단운동: 백성 중 일부가 기독교인이 되고 이 균형이 기독교 신앙에 적대적으로 되는 형태(루스드라에 있는 회당 공동체의 몇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 한 편 나머지 사람들은 바나마와 바울을 마을에서 쫓아냈다).

라오디게아식 집단운동: 집단운동이 점점 정체된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로 가득하다. 첫 사랑을 잃었다. 목양에 실패한 경우.

에베소식 집단운동: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세례도 받지 않고, 성령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구성된 작은 교회를 세웠다. 12명의 가장들과 그 가족들이 에베소 교회의 시초였다(1987:518).

거미줄 조직운동-인간 관계망 전도: 거미줄 운동은 다소 단속적인 것으로 또한 장기적인 인간집단 운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인간관계망을 형성하는 거미줄은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형제, 누이, 부모, 조부모뿐 아니라 사촌 형제, 숙부, 숙모, 증조부, 처제, 장모, 대부, 대모, 조카, 손녀와 손주 등 많은 인척을 알고 친밀하게 지낸다. 이런 친척관계는 소중하다. 어떤 집에 가서 하룻밤 묵을 수도 있고, 개인은 이런 관계망 속에 속해있다. 친척들은 서로 보호하고, 직업을 얻어준다. (1987:521)

인간사회는 인간관계망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는 신속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거미줄 관계망 내에서 일어나는 사망 및 결혼 소식은 번개불처럼 가족 전체에 전해지고 친척들은 다른 모든 일을 중지하고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참석한다”(1987:520).

### **토착교회 원리**

토착교회(Indigenous church Principle)는 선교기지 교회가 아닌 현지 문화적 특수성을 가진 교회,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교회를 말한다. “토착교회 원리가 적절하게 이해될 때 복음전파를 위해 대단한 가치를 가진다”(McGavran 1987:539).

우리는 선교를 협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제자들이 되도록, 그리고 그의 교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설득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987:61)

한국에 토착교회 원리를 소개한 존 네비우스의 6가지 토착교회 선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 개종자로 하여금 그가 불리움을 받은 부름 가운데 거하게 한다(고전 7:20). 각 개종자는 그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영위하였던 동일한 방식으로 생계비를 벌고 그가 세례받기 이전에 살았던 곳에서 생활한다. 기독교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식된다(1987:543).

2. 작은 양무리를 치는 무급 평신도 지도자들(장로와 교사들)을 신뢰한다.

3. 교회 집회를 교인들의 가정에서 하든가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수준에 따라 그들에게 속한 집회처를 갖게 한다.

4. 교회들로 하여금 유급 복음전도자들 또는 조력자들, 그리고 선교사 자신들에 의하여 지도 받게 한다.

5. 광범위한 훈련을 제공하라. 주일예배는 설교중심이 아니라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것 중심으로 한다. 성경 이야기를 말하고 회중으로 하여금 그것을 암기하게 하며 교리문답을 설명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 교리문답을 항목별로 암기하게 한다.

교리문답은 무급 지도자들이 한다. 선교본부는 지도자들에게 1달 정도의 강도 높은 훈련을 제공한다.

6. 새로운 교회개척은 기존 교회들이 개척하게 한다.

이처럼 네비우스는 토착 선교원리들을 실질적 차원에서 주장하였다. 이 체제는 주효하였다. 이것은 선교를 낯설게 하지 않았다. 이 방식은 무한정한 확장을 할 수 있었다. 복음을 참된 빛 가운데 제시하였다. 건전한, 자립 전도하는 교회들을 배가시켰다. (1987:544)

롤랜드 알렌(Roland Allen)은 토착교회에 대해 바울의 선교방법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성경적 방법으로 접근한다.

알렌은 20여년 동안 네비우스의 영향을 받으며 바울의 토착선교 방법을 사용하여 토착 선교원리들을 위한 성경적 기초를 발전시켰다. 바울은 새로운 교회를 세울 때 유대 대행자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언제나 새로운 기독교인들 가운데 무급 장로들을 임명하였다. 바울을 모든 교회의 치리와 관련한 문제를 성령의 인도 아래 지역교회들에게 맡겼다. (McGavran 1987:545에서 재인용)

알렌의 책,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의 공헌은 토착원리들을 성경에서 찾아냈고, 토착원리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토착교회가 성장하는 8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토착교회를 주장하는 선교사는 선교를 일차적으로 교회개척으로 해석한다. 네비우스는 교회 개척자였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배가하는 정열을 갖는다.

2. 비기독교인들은 토착교회 무급 지도자들을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또는 가까운 친척으로 본다.

3. 지역교회 지도자들은 가르치면서 배운다.

4. 선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데 담임목사에게 지불할 돈을 절약하게 한다. 새로운 집단에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재정적인 문제가 없다.

5. 전체 성원에 의한 자연적인 증가가 더욱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6. 일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의 제자들이 되고 그리스도 교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라고 할 때 교회들은 뜻밖의 장소들에게 배가된다.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종족에서 종족으로.

7.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교인들이 증가하면 토착교회 원리는 기독교인들이 모교회 또는 선교회가 아닌 자체 교회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전임 교역자를 초청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8. 토착교회 원리는 교인 규율이 지역교회들에 위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역교회는 선교사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이 원리는 교회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이 지교회를 판단하는 불쾌감을 제거하고, 온갖 문화적 적용의 여지를 넓혀준다. 성경과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자유롭게 따를 수 있다(McGavran 1987:551).

### **교회개척의 원리**

교회개척(The Multiplication of churches)이 최선이다. 맥가브란(McGavran)은 주장한다. “오늘의 가장 큰 과제는 지구상의 수용적인 사회들에 교회를 효과적으로 증식시키는 것이다”(1987:82). “사도바울은 헌신적으로 자신을 투자하여 교회개척을 하였다”(1987:62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환상적인 교회개척이 일어나는 것이다”(1987:622). 맥가브란의 교회성장학 교수인 피터 와그너는 교회성장의 핵심을 교회개척으로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교회성장에 관한 나의 연구결과는 가장 효과적인 복음전도 방법인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부흥의 길이다”(Wagner 1990:6). 와그너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성장하는 교단들은 예외 없이 교회개척을 강조하는 교단들이었다. 그 교단의 지도자들은 교회개척이 그들 교단의 성장의 핵심열쇠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만 그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그것을 알려 주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단 내에서 교회개척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교회들의 사역 중에서도 교회개척을 우선순위에 올려 놓는 데 성공했다. (1990:10)

맥가브란은 교회성장학의 아버지이다. 교회성장을 위해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강조한다. 그에게 가장 효과적인 복음전도는 교회개척이다.

이제 90대에 이른 맥가브란 박사는 교회성장운동을 위해 소중한 선지자일뿐만 아니라 강한 대부가 되었다. 해가 거듭해 가도 그의 열심은 결코 고갈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의 백과사전적 지식을 더하고 그가 기초했던 교회성장의 원리들을 검증하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방문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 그의 마지막 책 “효과적인 복음전도(Effective Evangelism- A Theological Mandate)”는 신학대학들과 신학교들에 정면 도전하여 그들의 사역 훈련과정에 복음전도에 대한 가르침과 실천에 훨씬 강력한 강조점을 두게 한다. (Gibbs 1994:22)

깁스는 강조한다. 목사들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있다. 자신의 교회에 성도를 불러 모아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을 목회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너무도 작은 그림이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야 한다. 그들에 맞는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복음전도와 지역교회 사이에 명백한 연관성을 확립하지 않는 것은 전략적인 실책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회의 수와 다양성도 증가해야 한다”(1994:9).

### 하나님의 다리 원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다리(The Bridges of God)를 찾아 사용해야 한다. 선교역사가인 라투렛(Kenneth S. Latourette)은 *The Bridges of God* 서문에서 맥가브란의 하나님의 다리를 “교회의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의 깊게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한 권의 책”이라 하였다(McGavran 1993:13). “최근에 출판된 선교 방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들 중의 하나이다”라고 강조했다(1993:17). 그는 말한다.

맥가브란이 논제를 전개하는 과정도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선교사들과 선교 위원회들, 그리고 신생 교회들이 주의 깊게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들을 향해 기꺼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고, 우리들이 채택한 방법들을 과감하게 버리거나 줄여 나가야 하며, 그리고 단호하게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하고 적용해야 한다. 생각이 깊은 독자들에게 이 책은 신선한 공기 속의 숨결처럼 다가올 것이며, 지난 세대가 유산으로 물려준 프로그램들에 도전하고, 아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길로 용감하게 모험을 떠나도록 고무하는 책이 될 것이다. (1993:17)



교회성장학을 태동시킨 *The Bridges of God*을 한국어로 번역한 이광순은 다리원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전세계에 복음을 전할 임무를 우리 기독교인 모두에게 주었을 뿐 아니라 나뭇의 선교전략까지도 세워 주셨다. 그 선교전략은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을 연줄로 연결해 주는 다리를 통해서이다.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에서 그리스와 로마로 건너가는 다리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바울은 이 다리들을 가장 잘 이용한 선교 전략가였다(1993:9).

하나님의 다리원리(The bridges of God, 하나님의 다리이용의 원리)는 탁월하다. 맥가브란은 “기독교 신앙은 친척에서 친척, 가까운 친구에서 가까운 친구에게로 가장 잘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McGavran 1987:567).

모든 인간사회는 편리한 곳에 다리가 건설된 강 한편에 있는 도시와 같다. 사람들은 다리가 아닌 다른 장소를 찾아내서 강을 건널 수 있다. 그러나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다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다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편리하게 강을 건널 수 있다. 새로운 생각, 식료품, 행진하는 행렬들, 신념들이 다리를 통하여 왕래한다. (1987:567)

맥가브란은 권한다. “친척과 친지들의 관계망은 교회성장을 위한 최상의 대로이다. 다리들을 사용하라”(1987:589).

다리를 발견하고 다리를 사용하라. 교회성장을 위한 행정을 할 때, 연결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다리를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은 다리를 기억하고 그 다리를 통하여 왕래해야 한다. (1987:567)

초대교회는 다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예루살렘의 보통사람들은 그들의 친척, 친지들에게 전도하였다. 핍박으로 피난하였을 때 다른 촌락에 사는 친지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 룻다와 샤론 부락은 전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위인이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지는 그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구브로였다.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지로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을 방문하였다. 바울의 아버지는 이 도시들에 사는 유대인들과 사업적 거래를 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바울은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출신의 유망한 젊은 랍비로 인식되었기에 가는 회당마다 강연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1987:569)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언급한 26명의 성도들은 바울이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다리들을 보여준다. 그는 루포의 어머니를, 나에게는 어머니와 같다고 하였다. “이미 당신의 핵심 교인들이나 당신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의 거미줄을 따라서 전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Wagner 1990:151).

친구가 중요한 다리가 된다. “하나님의 다리는 친척들만인 것은 아니다. 훌륭한 친구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자연적인 의사전달의 통로가 된다”(McGavran 1987:574).

사람들의 상호의식이 높고 모든 결혼이 관련된 사회의 요소 내에서 일어나는 구조가 긴밀한 사회들에서는 관계의 고리가 특별히 강력하다. 일단 기독교가 수립되고 1천명의 부부가 기독교인이 되면 10만의 다리들이 이용될 수 있다. 폭발적인 성장의 잠재력은 높다. (1987:578)

하나님의 다리는 관계전도로 설명할 수 있다. “교회성장 전략 가운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자연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교회의 이웃들을 전도하는 것이다. 사회적 연결망 가운데 교회주변을 복음화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된다”(1987:588). “친척들과 친지들의 네트워크는 교회성장을 위한 최상의 대로이다. 다리들을 사용하라”(1987:589).

### **담대한 전도계획의 원리**

교회성장을 위한 담대하고 과감한 전도계획(Set Goals and Make Bold Plans)이 필요하다. 맥가브란은 주장한다. “교회성장은 그를 위한 과감한 계획 없이는 좀처럼 이룩되지 않는다”(McGavran 1987:622).

계획을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아울러 그러한 목적에 가치있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는 천상계의 인쇄물을 제공함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안내받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음을 믿으면서 계획한다. (Gibbs 1994:370)

과감한 전도계획은 과감한 목표설정을 포함한다. 목표가 분명해야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 목표설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율적인 복음전도를 수행할 때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목표는 노력을 핵심과제에 집중하게 한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일치시키는 것이 본질적이다. (McGavran 1987:590)

과감한 전도목표는 하나님의 선교적 목표를 현장에 맞게 구체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일치한 목표설정은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목표설정은 목사들과 선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일치시키도록 돕는다. 목표설정은 머리가 되시는 위대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언제나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복음화에 언제나 매진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돕는다. (1987:591)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 보지도 못한 30억의 인류가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구주를 알게 해 주어야 한다”(1987:81).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의 책, *Frontiers of Missionary Strategy*(1971)은 전략의 시급성을 지적한다. 전략은 적절한 목표없이 정확하게 계획될 수도, 효과적으로 평가될 수도 없다는 것을 설파한다. 모든 복음전도의 목표들의 궁극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추종자들의 숫자로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모든 복음전도 프로그램의 양보할 수 없는 목표는 제자삼기가 되어야 한다. (McGavran 1987:603)

맥가브란의 이론에 따르면, 목표를 설정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복음전도가 철저하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라. 목표설정은 측정할 수 있는 교회성장이 성경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가르침으로 출발해야 한다.

둘째, 과거의 성장을 도표로 나타내라. 지난 10년 정도면 충분하다. 교인들의 분포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생물학적 성장, 전입성장, 개종성장 등을 살펴보라. “미래의 성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도구는 연간 평균 성장률(AAGR)이다”(1987:612)

셋째, 신앙에 입각하여 기획하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떠한 성장을 허락하시는지 헤아리라.

신앙에 입각한 기획들은 기도 및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에 대한 확신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신앙에 입각한 기획을 허락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책임 있는 청지기들로서 우리가 믿는 것이 그의 뜻에 일치하기를 간구해야 한다. (1987:611)

### 과감한 계획

과감한 계획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특정 인간집단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과감한 계획이란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인 어떤 것을 의미한다. 교회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주민 전체에 걸쳐서 교회에 교회를 설립하는 납득할만 하고 충분한 계획들을 고안하고 추진하는 일을 계속하여야 한다. (McGavran 1987:626)

특정 인간집단을 선교적으로 접근할 때, 선교의 각 단계에 적합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맥가브란은 다음 몇 가지 단계를 제시한다.

첫째, 연구조사의 단계이다(1987:632).

둘째, 훌륭한 지원을 받은 전초기지의 단계이다(1987:633).

셋째, 교회들의 힘있는 군락들이 다양한 지역들에서 발생한다. 복음에 응답하는 지역 사람들은 성령의 문화적 충동 또는 기타 행동에 의하여 감동을 받아 복수적인 개인결신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다(1987:634).

넷째, 주민들의 본질적 기독교화가 이루어진다. 주민의 3분의 1, 절반, 혹은 10분의 9가 기독교인이 된다(1987:635).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교전략을 수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이 단호하신 목적을 수행할 의욕적이고 과감한 계획들이 필요하다”(1987:648).

### 연구조사

담대한 전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교회가 개척될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필요 등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박기호 2016:33). 박기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일화로 설명한다.

나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친구들을 따라 몇 차례 낚시를 해본 경험이 있다. 한번은 캘리포니아 빅베어 산장 호수에 가서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낚시질을 하였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탈감을 안고 돌아온 적이 있고, 필리핀의 칼리라야에서는 오후 한나절 동안 30-40여 마리의 고기를 잡아본 일이 있다. 낚시할 때는 낚시 장소와 시간, 그리고 고기에 따라 낚시 밥을 바로 선정해야 한다. 물고기들도 모여 노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으며, 활동하는 시간이 있고 잠자는 시간이 있다.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미끼와 미끼에 낚시 바늘을 매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어떤 물고기는 미끼를 보면 쏘살같이 달려와 미끼를 차 삼키는 고기가 있고, 어떤 물고기는 미끼에 입을 대고 조금씩 흡입한다. 그러므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낚시하는 장소, 고기의 종류, 그리고 고기의 잠자는 시간과 활동시간, 그리고 고기들의 좋아하는 미끼와 먹이를 먹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2016:33)

### 평가 및 재수립

목표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재수립해야 한다. “그러므로 계획 세우기는 직선적이고 점층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적인 것이다”(Gibbs 1994:399).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표를 세우고, 평가하고, 그리고 재수립하는 순환과정을 계속해야 한다.

목표설정은 직접 계시에 의해 세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결과에 대한 하나의 평가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이 여전히 바른 목표들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작된 영향과 보다 확장된 경험의 견지에서 우리의 목표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계획이라고 해서 모두 잘 되는 것은 아니다. (1994:398)

### 요약

본 장에서는 교회성장학에 나타난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전략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맥가브란의 선교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교회성장학적 안목, 인간집단의 원리, 효과적 전도 원리, 수용성 원리, 제자 우선의 원리, 동질집단 원리, 인간집단 운동, 토착교회 원리, 교회개척의 원리, 하나님의 다리 원리, 그리고 담대한 전도계획의 원리에 대해 기술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호남 선교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 제 4 장

### 미남장로교회 선교부의 호남 교회개척전략

본 장에서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교회개척전략에 대해 기술한다. 한국의 개신교의 유신자 비율은 호남지방이 가장 높다. 그 이유는 미국 남장로교 교회개척전략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송현숙 2011:2).

이양재는 호남지역 초기 선교역사를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호남지방의 선교는 1983년 미남장로교의 7인 선발대가 한국에 도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미북장로교와 감리교회가 이미 한국에 복음을 전한 10년 후에 비로소 남장로교의 입국과 함께 호남 선교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 이북지방에 비해 전라도 지역은 복음이 늦게 전해진 것이다. 미남장로교는 선교지 분할 협정인 예양협정에 따라 호남지방을 선교지로 배당 받아 전라도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전주를 먼저 공략대상으로 삼고 전주에 선교부를 설치하고 점차로 군산, 그리고 전남 지역으로 확대하여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다. (이양재 2001:67)

송현숙은 문화지리학 관점에서 1892년부터 1942년까지 남장로교의 호남선교에 대해 연구하였다.<sup>1</sup> 송현숙은 남장로교가 호남의 역사적 발전을 이루는데 공헌하였고 호남의 근대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남장로교의 호남선교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남지방에 전파된 남장로교는 20세기 초 호남지방의 역사적 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정착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호남지방의 근대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남장로교가 호남지방에서 확산된 과정과 요인을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송현숙 2011:176)

미국 남장로교회는 미국 동남부 농업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 일어난 학생자원운동의 결과 남장로교는 1892년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내한 선교사들은

---

<sup>1</sup> 문화지리학에서 다루는 종교연구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종교체계의 분류와 종교적 공간조직이다. 둘째, 종교발달의 환경적 배경에 대한 고찰이다. 셋째, 종교의 환경개조방식이다. 넷째, 종교, 확산, 분포, 그리고 지리적 영향을 다룬다(송현숙 2011:1).

1893년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위하여 남장로교의 기반이 유사한 호남지방을 남장로교 선교구역으로 정하였다. 남장로교는 호남을 답사하고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 등을 선교거점으로 삼았다(2011:177).

### 미국 남장로교의 호남지방 선교전략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은 한국선교의 시대를 열었다. 외국 선교사들이 1884년부터 한국에 입국하였다. 알렌(H. N. Allen)은 의료선교사로 1884년 9월에 입국하였다.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Appenzeller)가 입국하였다. 이들은 복음주의 신학성향을 가진 젊고 열정적인 선교사들이었다(송현숙 2011:21).

### 남장로교의 호남선교

1864년 미국 남부지역 장로교단이 남장로교 총회를 창립하였다. 미국 남장로교단은 해외선교를 통해 교세를 과시하였다.

그 당시 미국은 함선과 항해술의 발달로 태평양 연안까지 영토를 확대하여 태평양권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부상하였고,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선교사업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지원도 가능하였다. 미국 장로교는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자본가들을 수용해 선교가 종교적 차원 외에 미국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자본가들에게 선교사업의 물질적 지원을 촉구하였다. (송현숙 2011:24)

미국 남장로교는 해외선교부를 조직하고 해외선교에 나섰다. 젊은이들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당시 미국에 학생자원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이 일어났다. 기독교 대학과 신학교들이 중심이 되어 엘리트 기독교인들에게 선교동기를 부여하였다. 이 SVM 운동을 통하여 1886년부터 1915년까지 5,000명 이상이 선교사가 되었다. 이들은 해외교회개척에 이바지하였다(2011:25).

1891년 10월 언더우드 선교사는 테네시 주 네쉬빌(Nashville)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선교집회에서 “한국선교 보고를 하고 한국유학생 윤치호가 한국 소개를 하였다. 이 집회에서 언더우드는 한국인들은 종교에 관심이 많으며 일단 개종하면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011:27). 이 집회를 통해 최의덕, 이눌서, 전위럼, 존슨 등이 한국선교사로 지원했다. 언더우드 선교사<sup>2</sup>의 형인 존 언더우드는 남장로교 한국선교를 위해 5,000달러를 헌금하였다. 이들을 포함한 7명의 남장로교 선교사가 1892년 9월 7일 아틀란타 장로교회에서 한국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호남선교의 개척자들이 되었다(2011:28). 이렇게, 언더우드의 활약으로 한국에 오게 된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테이트(Lewis Boyd Tate, 최의덕), 레이놀즈(William D. Reynolds, 이눌서), 전킨(W. M. C. Junkin, 전위럼), 매티 테이트(Lewis B. Tate), 리니 데이비스(Miss. Linnie Davis), 메리 레이번(Mrs. Mary Leyburn Junkin), 팻시 볼링(Mrs. Patsy Bolling Reynolds)이었다(김소정 2014:14).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가 1892년 첫 내한했을 때는 포교금지법이 완화되어 선교활동이 가능하였고 내한 선교사가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 순회전도가 본격화된 시점이었다. 이전의 의료 및 교육을 통한 간접적 선교활동은 대면접촉의 기회를 부여하여 종교전파의 발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서양인에 대한 적대감과 두려움을 불식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줄이고 천주교와 달리 사회저항을 최소화시켜 전파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송현숙 2011:30)

남장로교의 호남선교는 성공적이었다. “남장로교의 사역은 종합적이고 통전적인 선교를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호남지역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소정 2014:17).

### 호남 선교구역

미국 남장로교는 1893년 호남지방을 선교구역으로 맡았다. 한국에 먼저 들어와 선교하던 북장로교와 선교지에서 경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선교 구역을 정하게 되었다.

북장로교회 선교부와 남장로교회 선교부는 예양협정을 맺어 선교구역을 확정하였다. 북장로교에서 개척한 지역인 황해도와 평안도 및 서울지역은 그대로 북장로교 선교구역이 되었다. 후에는 대구, 안동지역도 추가되었다. 그 대신 남장로교회 선교부는 아직 선교사의 발길이 닿지 않은 충청도와 전라도를 선교구역으로 할당받았다. (임윤택 2005:78)

---

<sup>2</sup> 이런 연유로 언더우드 선교사는 호남선교의 아버지라 불린다.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출신지역은 미국 동남부 지방으로 호남지방과 같은 곡창지대 출신들이었다. 그들은 친숙한 환경에서 선교하였기에 현지적응이 쉬웠고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전주를 호남지방의 첫 선교거점으로 삼았다.

호남내륙 중심부에 위치한 전주는 서해로 유입하는 만경강의 한 포구인 서시포에 인접하고 육로로 김제만 평야지역의 항구인 군산과도 연계되며, 군산에서는 다시 인천 목포 등 서해안의 주요 항구를 잇는 해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리적 입지 때문에 전주는 1894년 호남지방 첫 선교거점이 되었다. (송현숙 2011:38)

남장로교 호남선교는 “선교 스테이션이 설치되면서 바로 미션스쿨과 교회, 병원사역을 함께 시작하였다”(김소정 2014:17). 하지만, 호남지역의 선교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호남 “선교사역의 길은 멀고 험했다. 호남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동학혁명(1894)과 뒤이은 청일전쟁(1895)으로 인해 민심이 어수선하였다”(박윤애 2007:25).

### 네비우스 방법

호남지방에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내한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열정적인 선교사역을 감당하였다.

남장로교 파송 한국 선교사들은 1892년부터 1987년까지 450명의 선교사들이 내한하여 열심히 선교사업을 펼쳤다. 그들은 복음의 열정을 젊음과 함께 한국 땅에 심었고 그들의 헌신된 선교사역은 호남지역은 물론 한국교회사에서 크게 빛나고 있다. (김소정 2014:16)

당시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들을 젊었다. 그들은 고학력을 가진 20대 청년층이었다. 나이를 강조하는 한국문화를 감안하면, 젊은 선교사들에게는 약점이 많았다.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해야만 했다.

1890년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노련한 네비우스(John L. Nevius)를 초청하여 모임을 갖고 선교전략을 결정하였다. 네비우스 방법을 공식적으로 수용하였다(임윤택 2005:78). 이것은 남장로교 선교부의 호남선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네비우스 방법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김소정 2014:2).

- 1) 전도의 목표를 상류층보다는 노동계층에 두는 것이 더 낫다.

2) 후대에 미치는 부녀자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녀자와 소년, 소녀들의 전도를 특수목표로 한다.

3) 시골 마을에 초등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교육에 효과를 내고 그 가운데서 남학생을 교사로 양성하여 파송한다.

4)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교역자를 양성한다.

5)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하여 세상에 내놓는다.

6) 모든 문서 활동에는 한자를 벗어나서 한글을 사용한다.

7) 자립하는 교회를 목표로 한다.

8) 한국인 대중의 전도는 한국인 자신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선교사는 적은 수의 전도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9) 의료선교는 외래 중심보다는 입원 중심으로 전개시킨다.

10) 지방에서 온 장기 입원환자는 퇴원 후 심방해서 그 지방 전도사와 연결시킨다.

장로교 선교부의 첫 번째 의장은 레이놀즈였다. 그는 장로교 선교부가 네비우스 방법을 채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레이놀즈는 ‘장로교선교부 공의회’의 첫 번째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회의에서 선교지역 분할과 네비우스 선교정책이 채택되었다. 한국의 남·북 장로교 선교사들은 이 조직을 통해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충돌을 피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주한 개신교 선교부들의 대표적 연합 사업인 성서의 번역과 개역 작업을 주도했다. 그의 선교 인생 중 절반은 장로교파의 4개 선교부가 연합하여 운영했던 평양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조용호 2007:iv)

네비우스(Nevius 1882)는 중국문명과 문화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네비우스에 의하면 19세기에 중국에서 사역하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새로 믿는 중국인 성도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봉급을 주면서 일하게 하는 선교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적이고, 자립하는 진취적인 토착교회 개척이었지만, 초기 단계에는 토착교회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 돈을 사용하고 점차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네비우스는 중국 선교부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점차 그 방법을 지양하고, 전략의 수정을 가져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Nevius 1985:7-9).

네비우스는 새신자들을 돈을 주고 고용하지 말고, 자신의 일터에 그대로 머물면서 전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했고, 24절에서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말하였다. 21절과 22절에서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라고 말하였다. 네비우스는 기독교는 교인들의 사회적 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도록 도우면 그들이 부름받은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야 한다. (1985:19)

네비우스 당시 선교사들뿐 아니라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돈을 주고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사역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선교사들 자신들이 즉시 사역의 결과를 보기 원하고, 본국의 선교부들과 후원교회들도 선교사들의 사역 결과 보고를 조급히 기대하기 때문이다. 네비우스 당시 중국주재 서양 선교사들은 수개월이 가고 수년이 가도 현지 언어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하여져서 외국 돈으로 새로 믿은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복음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1985:11).

네비우스는 새 신자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킬 때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다음과 같이 직시하였다(1985:11-18).

- 1) 새신자를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것은 그들이 관계하고 있는 선교부에 해를 끼친다.
- 2) 새신자 자신에게 종종 해가 된다는 것이 입증된다.
- 3) 설교자로서 혹은 교인들로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게 한다.
- 4)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용병정신을 자극하고 용병 기독교인들의 수를 증가시킨다.
- 5) 무보수 사역자들의 자원사역을 중단시킨다.
- 6) 외국인의 눈에나 본토인의 눈에 선교사업의 성격을 저하시키고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호남지역에서 통전적인 선교를 하였다. 호남지역에서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다양한 선교사역들이 열매를 맺었다.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복음전파를 위해 복음전도와 의료선교, 교육선교를 통전적으로 펼치면서 「네비우스 방법론」을 기초한 선교원칙에 입각해 충실하게 선교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호남지역의 복음화에 지대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김소정 2014:21).

### 핵심인물

미남장로교에 핵심인물들이 있었다. 미남장로교 선교부가 호남지역에서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핵심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용호는 박사논문으로 미남장로교 한국선교부를 대표하였던 “미남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D. 레이놀즈(William Davis Reynolds, 1867-1951)의 한국 선교 활동과 신학을 전생애(全生涯)의 차원에서 조망하였다”(조용호 2007:iii). 그는 자신의 논문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892년, 25세의 젊은 나이로, 19세기 미국 복음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여, 1937년 은퇴하여 귀국할 때까지 45년 동안, 개신교 연합운동, 성서번역작업, 평양신학교 교수활동, 전라도와 서울에서의 선교·목회활동 등, ‘열광적 교회일치주의자’로서의 삶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신학교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소개하고, 성경의 무오성과 완전영감론 등의 기독교 정통교리를 수호하는 충실한 복음주의적 근본주의자로서의 삶을 조망해 봄으로써, 복음적 공감대안에 자리잡고있던 19세기 복음주의 기독교의 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미남장로교의 대표적 선교사인 레이놀즈에 대한 균형감있는 시각을 제공하였다는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2007:158).

김인수는 ‘레이놀즈가 한국장로교 선교상황의 발전과 변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평양신학교를 대표하는 세 명의 교수 중 한 분으로 조선교회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김인수 2009:11).

레이놀즈는 한국 장로교 설립과 발전의 공헌자이다. 그는 미국 남장로교회 한국 선교사들과 호남지역 교회를 대표했으며 적극적인 연합주의자였다. 그는 내한 이듬 해에 장로교 선교사공의회의 의장으로 선교지 분할을 위한 예방협정과 네비우스 선교정책을 구체화하는 일의 중심에 서게 된다. 또한

레널즈는 마지막 독노회장으로 총회조직 회장의 책무를 감당하여 1912년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탄생에 크게 공헌하였다. (2009:177)

레이놀즈는 한글성경 번역사역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언어적 재능이 탁월한 번역가였다. 그는 성경번역뿐만 아니라 성경사전과 신학교제 등을 한글로 번역하였다.

1895년부터 성서번역에 참여한 레널즈는 1900년 첫 신약성서, 1906년 개정판 신약과 1910년의 구약번역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어학적인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1937년 개역성서가 완성되기까지 레널즈의 역할은 최고의 한글성서번역가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레널즈는 성서번역 초기에는 아펜젤러, 게일, 언더우드 등과 협력했으며, 후기에는 피터즈, 스톱스 등과 협력하였고, 때로는 홀로 고군분투하며 한글성서의 번역을 위해 헌신한 가장 위대한 공헌자이다. 미국성서공회 한국 지부 총무였던 밀러는 레널즈에 대하여 ‘최고의 한국어 실력의 소유자이며, 구약의 예레미야를 제외하면 모든 성서의 번역이 그의 작품’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2009:177)

레이놀즈는 한국기독교회라는 한국 내 단일교회 창립을 추진하였다. 그는 한국인과 한국교회를 사랑하였다.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단일교회가 서기를 기도했다.

레널즈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결론은 연합과 일치에 대한 그의 열정과 헌신이다. 한국에 단일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레널즈는 성서번역 사업을 위해 교단을 가리지 않고 협력했으며, 선교사 공의회의 결정사항인 선교지 분할협정을 철저하게 실천했다. 더 나아가 선교연합체를 결성하여 “한국기독교회”라고 하는 단일 교회의 창립을 추진할 것을 동의하였고, 그의 동의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아쉽게도 그의 노력이 한국의 단일교회 설립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하나의 장로교회에 대한 일념은 매우 높이 평가 받아 마땅하다. (2009:178)

<표 1>

남장로교회 연대표  
(송현숙 2011:54-55)

한국교회	연도	호남지방	단계
이수정의 미국 선교사요청 서상륜 소래교회 창립	1883		여 명 기
예수성경전서 출판	1887		
기독교 금교령 통보	1888		
호주장로교 선교사입국	1889		
영국성공회 선교사입국			
	1892	남장로교 7인 선교사입국	정 착 기
캐나다장로교 선교사입국	1893	호남선교구역 선정	
장로회 선교공의회 조직		장로회 선교공의회 가입	
성서번역위원회 조직	1896	전주·군산선교기지 구축 이눌서 Art of Soul Winnng 출판 및 성서번역위원회 활동	
	1897	전주 예수병원 설립	
	1898	목포선교기지 구축	
조선아소교장로회공의회	1900	아소교장로회공의회 가입 전주 신흥남학교 설립 전주 기전여학교 설립	
평양장로회신학교 개교		평양장로회 신학교 교수활동 참여	
기독교청년운동	1902	구암·예수병원 설립 군산 영명·멜본단여학교 설립	
	1903	목포 정명여학교 설립 목포 영흥중학교 설립	
미국 침례교 선교사입국	1904	광주선교기지 구축 광주 제중원 설립	
	1905	선교연합회 조직	확 산 기
	1906	군산 Francis B. Atkinson 병원신축	
장로회독노회 조직	1907	전라대리회 조직 주일학교시작(전주) 미션스쿨 교육전담선교사 내한 사경회 개최(목포) 제주도 선교사 파송	
	1908	광주 숭일남학교 설립 광주 수피아여학교 설립 맹현리 선교사 도서전도사역	
백만령구령운동	1909	최초 3인의 호남목사 배출 광주 나병원설립 백만령구령운동 전개	
	1910	최중진 자유교회사건	
조선 신교육령 발표	1911	전라노회 조직 성경학교 개교	

한국교회	연도	호남지방	단계
장로회총회 창립	1912	광주 제중원 신축	확 산 기
	1913	순천선교기지 구축 순천 배산학교 설립	
	1914	목포 French Memorial 병원설립	
기독교교육 규제	1915	순천 Alexander 병원 설립 교육평의회 조직 기독신보 편집위원회 참여	
	1917	전라노회 분립	
	1918	노회원 수양회 전주 여자성경학교 설립	
교회의 3·1운동 참여	1919	미션학교와 교회의 3·1운동	
면려청년회 창립			정 체 기
조선주일학교연합회 창립	1922	전국주일학교대회(전주)	
조선기독교연합회 창립	1924	조선기독교연합회 가입 하기성경학교 시작 확장주일학교 시작 교회진흥운동 동참 부인조력회 조직	
	1925	호남면려청년회 조직 YMCA 순회봉사활동	
	1926	여수 애양원 설립	
찬송가 발행	1928		
	1929	독신전도단	
	1930	제1회 주일학교대회 <종교교육>장간	
	1932	면려청년회 운동	
장로교총회진흥운동	1934	진흥운동 전개	
신사참배강요	1935	남장로교 신사참배거부	
사립학교 규칙개정: 미션스쿨 탄압	1937	홀튼성명 발표	
27회 총회신사참배결의	1938	미션스쿨 폐교조치	
기독교지도자 검거	1940	남장로교 선교사 출국 순천노회 15인 사건	
	1941	남장로교 선교사 3인 구속수감	
선교사 전원출국 명령조치	1942		
조선장로교단조직	1943		
예배당 정발	1944		
해방	1945		
교회재건운동	1946	남장로교 선교사 재입국	

### 남장로교회 연대표

남장로교의 연대표는 남장로교 호남선교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다. 연대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남장로교의 호남선교는 헌신적이었다.

## 복음전파 방식

남장로교의 복음전파 방식은 효과적이었다. 그들은 전도와 교회개척을 위해 사회적 연결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맥가브란은 신약교회가 성장한 배경에 사회적 연결망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순절 이후의 기독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한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McGavran 1993:40).

남장로교의 전파방식은 성경공부, 사경회, 순회전도와 같은 직접 전파방식과 교육 및 의료를 통한 간접 전파방식, 성경배포 등 개종을 자극하는 자극 전파방식이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미국 남장로교 확산통로를 확인한 결과 사랑방 같은 사회적 연결망과 정기시장이라는 지역적 연결망이 중대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성경공부는 사회적 연결망으로, 선교기지의 사경회와 5일장은 지역적 연결망으로 작용하여 남장로교를 지리적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대면접촉에 입각한 순회전도, 성경공부와 사경회 같은 종교활동은 미국 남장로교가 호남 전역으로 확산되는 촉매로 작용하였다. (송현숙 2011:183).

남장로교 선교전략 가운데, 의료선교도 중요한 선교방식이었다.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펼침에 있어 의료선교사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병들고 죽어가는 한국사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의사요, 병원이었기 때문이다. 의사가 진료소를 차리면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게 마련이었고 선교목사는 환자들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임윤택 2005:81)

김소정은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부의 아동선교(1892-1945)’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성공적이고 역동적인 선교를 하였던 미국 남장로교의 아동선교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남장로교의 선교사역 가운데서 아동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미션스쿨과 주일학교 운동을 중심으로 다루었다”(김소정 2014:1)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사역들 가운데 아동선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네비우스 정책에 바탕을 두고 선교를 펼쳐나갔다. 선교정책에 입각해 비교적 접근이 쉬운 아동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미션스쿨과 주일학교 운동을 중심으로 아동선교를 펼쳐나갔다. 아동선교는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중심적인 사역이었다.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교회가 처음으로 설립될 때에도 어린이들의 숫자는 어른들 못지않았으며 때로는 어른들을 능가하기도 하였다. 늘어난 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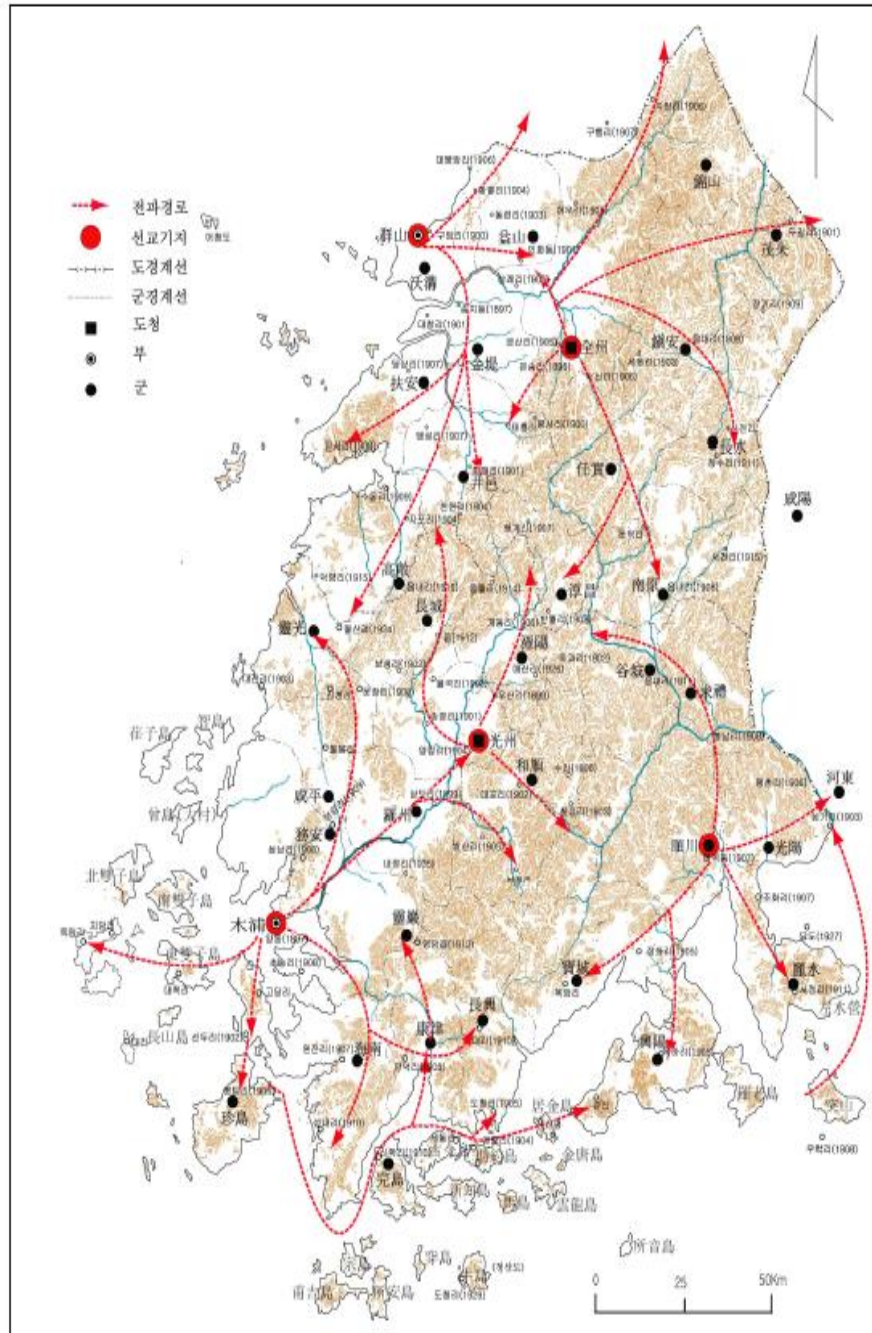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선교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남녀 미션스쿨이 각 선교 스테이션에 세워졌다. (2014:108)

김소정은 남장로교의 주일학교 운동에 대해 주목하였다. 남장로교회가 강조했던 주일학교 운동이 교회개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남장로교 아동선교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룬 것은 주일학교 운동이다.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주일에 한 번씩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주일학교를 운영하였는데 주일학교에서는 더 많은 아동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였다. 교회에서 주일에 아동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사역은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아동선교에 힘썼다. 특히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확장주일학교를 운영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시골과 산간지역의 마을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파견해서 주일학교를 조직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헌신적으로 도왔다. (2014:109)

### 확산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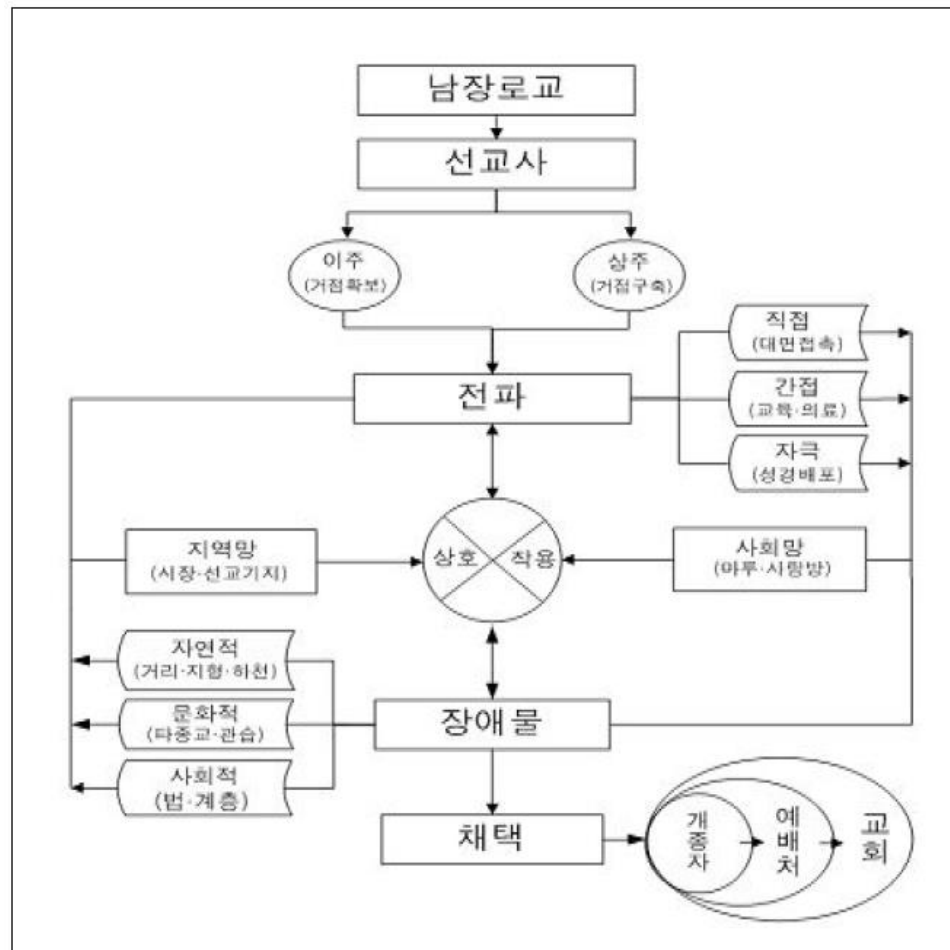
남장로교 선교부는 호남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다. 복음은 널리 확산되어 갔다. 초기 확산경로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남장로교의 호남선교 확산경로  
 (송현숙 2011:146)

## 남장로교의 선교확산 메커니즘

송현숙은 호남에서 확산된 남장로교 선교확산 메커니즘을 아래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그림 3>  
미국 남장로교의 호남선교확산 메커니즘  
(송현숙 2011:148)

### 미국 남장로교 호남선교의 특징

각 선교부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 미국 남장로교 효과적으로 개척교회를 설립했던 초기 호남선교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송현숙 2011:184-185).

첫째,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학생자원자운동을 통해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1892년 내한하였으며, 그들은 자연환경과 문화가 유사한 호남지방을 선교구역으로 선택하였다.

둘째,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현지 답사를 통해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을 전략적 선교거점으로 삼았다. 전략적 거점은 교회개척 선교를 확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셋째,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선교기지를 중심으로 하천, 육로, 해로를 따라 교구와 구역으로 세분하였다. 그들은 효과적인 선교유형으로 교회개척, 교육, 의료를 중심축으로 하고, 성경공부와 사경회, 주일학교, 성경학교, 미션스쿨 등의 교육활동을 하였다. 의료선교는 호남인들이 선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고, 교세확장에 기여하였다.

넷째, 미국 남장로교 선교확산은 두 차례 진행되었다. 전기확산은 1905-1909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호남지방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후기확산은 1917-1922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선교사의 효과적인 선교전략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때에는 교육기관과 의료를 통한 간접전도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다. 전략적으로 전개한 성경반포가 선교에 효과적이었다. 맥가브란이 지적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다리로 작용하는 인간관계망을 통해 교회개척이 이루어졌다.

가족, 친지, 이웃 등 가족경로를 통한 사회적 연결망이 교회설립에서 우세하였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미국 남장로교 확산통로는 사랑방이 확산의 중대한 연결고리로 작용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성경공부는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교세확장으로, 정기시장은 지역적 연결망을 통해 남장로교의 지리적 확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2011:185)

다섯째, 미국 남장로교 개척선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요인들이 있다. 수로를 비롯한 지리적 조건, 경제적 특성, 미션스쿨과 병원을 통한 선교전략, 전도자의 열정 등의 요인들이 있었다. “남장로교의 선교에서 복음전도의 사역이 언제나 중심에 위치하였지만

사회봉사와 함께 교육선교, 의료봉사, 사회참여의 행동이 동시에 계속되어졌다”(김소정 2014:20).

여섯째, 미국 남장로교 개척선교는 종교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광주와 전주에서 여성들을 위해 성경학교를 열어 성경을 가르쳤으며 교회의 지도자로 여성들을 세웠다”(2014:20).

호남지방에서 남장로교의 종교교육은 종교전파뿐만 아니라 사회계몽으로 구습의 타파 및 자유와 평등사상 고취 그리고 인재양성, 여권신장, 민족의식함양, 청소년선도 등 긍정적 영향을 끼쳤고, 전통문화의 변질과 민속양식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으로도 작용했다. 종교교육이 지역발전과 지역통합에 기여한 점도 확인되었다. (송현숙 2011:185)

여성 독신 선교사들의 아동선교도 효과적이었다. 아동과 여성사역을 위한 독신 선교사들의 활약은 놀라웠다.

아동선교에 앞장섰던 선교사들은 주로 독신 여성 선교사들이었다. 물론 남성 선교사들이나 주부 선교사들도 아동선교를 하였으나 아동과 여성을 위한 사역에는 독신 여성 선교사들의 활약이 컸다. 대표적인 독신 여성 선교사 린니 데이비스 선교사, 매티 테이트 선교사,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는 한국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여성선교와 더불어 아동선교에 헌신을 다했던 선교사들이다. 데이비스와 매티는 내한 초기부터 아동들을 모아 성경과 찬송을 가르쳤으며 호남지역에 배치를 받아 군산과 전주 등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아동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 하였던 선교사들이었다. 또 광주지역에서 활발한 선교를 감당한 셰핑 선교사도 역시 간호 선교사로 내한하였지만 주일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힘썼다. 바로 이일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여성조력회의 회원들을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도록 도왔으며 교사로서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주일학교 교사로 파송하여 주일학교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여성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아동선교는 주일학교 발전으로 이어졌고 호남지역의 아동선교의 확대와 호남지역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졌다. (김소정 2014:110)

남장로교 선교부의 호남선교는 탁월했다.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호남을 변화시켰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연상케하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다.

선교는 좋은 일이었고 깨끗하게 잘 해냈다. ‘복음의 열정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선교사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히 뛰어다녔고, 이 세계를 혁명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외치고 다녔으며, 자신들은 이 위대한 사업의 일부분만 감당하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그들의 행동과 가르침의 힘은 그들 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을 초월한 어떤 곳에 있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것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깨달을 수 있었다. (Huntley 2009:956)

### 요약

본 장에서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호남지방 교회개척선교 전략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남장로교가 호남선교를 시작하게 된 배경, 네비우스 선교방법, 핵심인물, 기독교 전파방식, 확산경로, 확산 메커니즘, 그리고 남장로교의 호남지방 개척선교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호남지역의 교회개척 전략에 관하여 기술할 것이다.

## 제 5 장

### 호남 지역의 교회개척 전략

본 장에서는 호남지역의 교회개척 전략에 관하여 기술한다. 이 전략은 호남지역에서 효과적으로 교회개척 사역을 하였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교회개척 전략을 풀러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정리한다.

#### 통전적선교 전략

미남장로교 선교부는 호남에서 통전적 선교전략을 사용하였다. 병원, 학교 등 사회복지 선교를 하였다. 교회개척운동과 함께 교회중심의 아동선교를 하였다.

#### 사회복지 선교전략

임윤택은 호남지방에서 사회복지 발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는 남장로교 선교가 호남지방의 사회복지 발전에 공헌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호남지역에서의 사회복지사업은 전주와 군산 그리고 목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전주의 예수병원 사업을 들 수 있다. 잉골드는 전주 최초의 공식적인 의사로 활동하여 많은 환자를 치료하여 주었다. 1903년에 예수병원에서 진료한 환자만 해도 1,500명이나 되었다. 잉골드 테이트 여사가 의사로서의 진료를 그만두고 복음선교에 전념하기로 하자 미국 남장로교에서는 포사이드 의사를 한국에 파송하였다. 포사이드 후임으로 독일인 버드만(F. H. Birdman)이 전주에 와서 진료하다가 함경도에 있는 미국인의 금광으로 가고 그 후에 다니엘(Thomas Henry Daniel M.D.)이 군산에서 전주로 옮겨와 진료하다가 서울 세브란스 의전으로 옮겨갔다. (임윤택 2005:157-158)

## 교회중심의 아동선교

남장로교의 아동선교는 호남지역 개척선교에 큰 공헌을 하였다. 교회중심의 아동선교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남장로교 한국 선교부의 아동선교는 주일학교 운동과 미션스쿨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었으며 다음세대를 준비하고 세우는 선교부의 중심사역이었고, 호남지역의 교회와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다.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아동선교의 성공은 오늘날 호남지역의 높은 복음화율로도 입증되고 있다. 오늘날도 교회의 중심사역으로써 아동선교가 계속되어질 때 앞으로 100년 후 한국교회의 미래도 밝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핵심인물 전략

호남지역 개척교회운동을 위한 핵심인물이 필요하다. 인간집단운동의 역학을 이해하는 핵심인물을 길러야 한다. 다양한 인간집단들 가운데 일어난 집단운동과 개척교회운동을 연구한 핵심인물이 필요하다. 맥가브란은 이런 핵심인물을 탐험가로 비유한다.

그들은 수 십 개의 인간집단운동들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이 운동들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어머니 선교회가 그 운동들을 양육했는지, 어떻게 그 운동들에게 젖을 주었는지, 어떻게 병을 고쳤는지를 알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 세계의 가장 귀중한 보물인 교회의 선교 열정을 가장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다른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탐험가들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것이다. (McGavran 1993:198)

임윤택은 미남장로교 선교부의 복지선교전략이 호남선교에 효과적이었다고 지적한다. 호남선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애양원 사업은 포사이드가 데려온 나환자 여인을 통해 피어났다.

포사이드가 데려온 나환자 여인이 계기가 되어 1909년 가을 한센 환자의 집(Leper House)을 따로 마련하여 5-6명의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1911년 4월 25일 당시 전라도 광주군 표천면 봉선리에 광주나병원을 출범시켰고, 그 해 11월 1일 조선총독부로부터 광주나병원 인가를 받게 되었다. 비록 두 개의 작은 방을 마련해 7명의 환자들을 수용한 규모로 출발했지만, 그의 마음은 수주 내에 100개의 병상을 마련했으면 할 정도였다. 윌슨의 선각자적인 안목은 당대 구라사업의 요람이었던 광주나병원을 애양원이라는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임윤택 2005:161)



### 동질집단 전략

호남인 가운데 다양한 인간집단이 존재한다. 호남인을 위한 개척교회운동을 전개한다 하여도, 그 가운데 어떤 특정한 동질집단을 위한 개척교회를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 수용성 전략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일반인들은 지성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갖게 될 것이다. 맥가브란은 지적한다. “오히려 지식인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결론에 스스로 도달하게 될 것이다. 복음은 반드시 지식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McGavran 1993:158).

### 하나님의 다리 전략

하나님의 다리를 발견하고 사용하라. 라투렛은 하나님의 다리전략이 20세기 선교전략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맥가브란의 ‘하나님의 다리’를 이렇게 추천했다. “이 책은 최근에 출판된 선교방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들 중 하나이다”(Latourette 1993:17). “우리는 방법론에서 복음 전파의 깊은 의미들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여기에 그 문제점을 대담하게 파헤치고, 선교회들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긍정적이고도 획기적인 제안을 하는 한 권의 책이 있다”(1993:16).

맥가브란은 인간집단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가를 질문한다. 그에게 어떻게를 보여주는 방법론은 중요한 이슈이다. 정확한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McGavran 1993:19-25). 맥가브란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인간집단 개종운동 과정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특정 인간집단이 가지는 집단정신과 집단결정 과정을 이해해야만 인간집단을 개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1993:27-31).

맥가브란은 신약성경에 주목한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인간집단 개종운동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주장한다. 유대교 내부의 강력한 인간집단 운동, 안디옥의 그리스 인간집단

운동, 바울이 선택했던 인간집단 운동의 중심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응답했던 인간집단들이 바로 하나님의 다리였다고 설명한다(1993:39-55).

맥가브란은 초대교회 이후의 선교역사에 나타난 인간집단운동과 인간집단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하나님의 다리에 대해 설명한다. 맥가브란은 로마 제국의 개종에 하나님의 다리를 통한 인간집단 개종운동이 있었다. 북유럽 인간집단의 개종도 하나님의 다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종교개혁의 사회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다리를 통한 인간집단 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1993:61-65). 맥가브란은 선교기지 접근법에 대해 비판한다. 선교기지 접근법 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다리를 통한 인간집단 개종운동이 훨씬 효과적인 선교방법이라고 논증한다. 이것이 바울식 선교방법이다. 보다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선교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다리를 통한 인간집단 개종운동이라고 주장한다(1993:174-192).

### **집단개종 전략**

집단개종이 하나님의 다리전략의 목표이다. 특정 인간집단이 그리스도에게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다리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목표는 인간집단에 속한 여러 개인들이 개인적인 결단을 통하여, 그리고 집단적인 결단을 통하여 복음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 집단운동의 역학이다.

이 책(The Bridges of God)에서의 선교는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면서도 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다리 저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전략이 바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한 집단적인 개종운동이다. (McGavran 1993:10)

### **토착교회 전략**

“선교의 목적은 모든 문화의 모든 공동체 내에 진정으로 토착화된 교회를 갖는 것이다. 그것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만이 우리는 복음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McGavran 1987:160).

토착교회란 자치, 자립, 그리고 자전하는 교회를 말한다. 토착교회 개척은 타 문화권 교회 개척자의 목표인 동시에 또 다른 토착교회 개척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진 교회의 복음 선포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결과로 교회가 개척되게 된다. 모든 생물이 주위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성장하며 번성해 가듯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세워지는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해가도록 되어 있다. 타 문화권 교회 개척자는 복음선포의 결과로 선교지에 세워지는 진리안에서 자라가며 땅 위에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되 불필요한 간섭과 재정지원을 삼가고 그 교회가 처음부터 자치, 자립, 자전의 원리 위에서 서가도록 도와야 한다. (박기호 2016:36)

이양재는 순천 광양지역에 세워진 광양 신항리교회 개척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항리 교회가 토착교회 리더십을 통하여 개척되었고, 이 교회는 타 지역에 토착교회를 세우는 전략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광양 신항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순천지역뿐만 아니라 광양지역에서 세워진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되어서 각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백운산 깊은 골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하여 인근 진상, 옥곡, 진월, 골약, 옥룡 등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신항리교회는 단순히 백운산 골에 세워진 단순한 산골교회가 아니라 아직 미 개척된지역에 복음을 수출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양재 2001:68)

### **담대한 계획**

호남지방 선교를 위한 담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낙관적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 계획 가운데, 선교회와의 전략적 관계가 포함된다. 미국 남장로 선교부와 그 이외로 호남에서 사역하는 선교부들은 효과적인 개척운동을 하는 호남토착교회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동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남토착교회운동도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서 온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McGavran 1993:176-177).

### **효과적인 개척교회운동**

효과적인 개척교회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맥가브란이 주장하는 특정 인간집단 가운데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개척교회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운동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지점들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을 선교 전략으로 삼음으로써 새로운 진보의 시대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McGavran 1993:149).

오늘날 이러한 종류의 모든 계급들, 모든 부족들, 모든 씨족들, 또는 모든 족속들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회들의 모든 자원들을 그 운동들에 투입해야 하며, 그리고 그 운동들은 아직도 더 많은 자원을 흡수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처지를 비옥한 땅과 척박한 땅을 분리하고 있는 깊은 골짜기 위에 걸쳐 있는 다리에 비유한다면, 이미 대부분의 척박한 땅에 다가갈 수 있는 다리들이 충분히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선교 기지들은 미래에 접근할 다리들을 건설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1993:146)

허마르다(Martha Huntley)는 한국교회가 성공한 비밀을 알고 싶어했다. 수년 간 연구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에서 교회가 성공한 이유를 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선교정책,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심리적 요소를 살살이 살펴 본 일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보다는 한국 교회의 성장은 한국인들 자신에게 있다. 개종을 하면 그 순간부터 즉시로 제자가 되어 전도자로 나서며, 자신으로부터 새신자를 증식시키고 또 시키는 한국인이야말로 교회성장의 참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2009:642)

### 요약

본 장에서는 호남지역 교회개척 전략을 기술하였다. 미남장로교 선교부의 통전적 선교전략을 바탕으로 핵심인물 전략, 동질집단 전략, 수용성 전략, 하나님의 다리 전략, 집단개종 전략, 토착교회 전략, 담대한 계획, 그리고 효과적인 개척교회운동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다음 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를 요약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함으로 본 논문을 마친다.

## 제 6 장

### 결론과 제언

본 논문은 호남지역 교회개척 전략을 위해 미국 남장로교의 호남지역 교회개척 전략을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이해한 선교 목회학적 기술의 결론이다. 지금까지 호남지역의 효과적인 개척교회운동을 위한 개척교회 전략을 기술하였다. 이제 지금까지 연구를 요약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함으로 논문을 마친다.

#### 요약

본 논문은 호남지역 교회개척 전략을 위해 미국 남장로교의 호남지역 교회개척 전략을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선교 목회학적 기술이다. 지금까지 연구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미국남장로교 선교부의 교회개척 선교전략에 관한 연구의 개관으로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연구 목표들과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핵심 연구 주제와 연구 질문들로 본 논문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개척 전략에 관하여 다루었다. 풀러 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을 발전시킨 교회성장학자들이 가졌던 교회개척에 관한 성경적 배경을 기술하였다.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을 위한 성경적 배경으로, 모든 민족, 예수님의 비유, 정보와 계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충정, 전도계획, 제자우선, 집단개종,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개종, 수용성, 수확신학, 하나님의 다리와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의 종말론적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교회성장학에 나타난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전략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맥가브란의 선교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교회성장학적 안목, 인간집단의 원리, 효과적 전도

원리, 수용성 원리, 제자 우선의 원리, 동질집단 원리, 인간집단 운동, 토착교회 원리, 교회개척의 원리, 하나님의 다리 원리, 그리고 담대한 전도계획의 원리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호남지방 교회개척선교 전략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남장로교가 호남선교를 시작하게 된 배경, 네비우스 선교 방법, 핵심인물, 기독교 전파 방식, 확산경로, 확산 메커니즘, 그리고 남장로교의 호남지방 개척선교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호남지역 교회개척 전략을 기술하였다. 미남장로교 선교부의 통전적 선교전략을 바탕으로 핵심인물 전략, 동질집단 전략, 수용성 전략, 하나님의 다리 전략, 집단개종 전략, 토착교회 전략, 담대한 계획, 그리고 효과적인 개척교회운동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를 요약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함으로 본 논문을 마친다.

## 제언

첫째, 호남지역 교회개척 전략을 다양한 인간집단별로 세분화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호남지역 교회개척 전략을 이미 구현하고 있는 토착적이고 성장하는 호남교회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인간집단운동들에 대한 연구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McGavran 1993:197).

셋째, 호남지역 교회개척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핵심인물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미국 남장로 선교부와 긴밀한 연결망을 통하여 남장로 선교부가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개척교회 전략을 오늘에 재현할 수 있는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 부록 A

###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호남지방교회 개척현황

설립연도	교회명	현 소재지			설립자	교회확장
1896 1896 1897 1898 1899 1899 1899	서문외 화산동 송지동 양동 양전 신리 삼도리	전주시 김제시 목포시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완산구 화산면 공덕면 용진면 상관면	다가동 3가 운산리 회룡면 만북동 신지리 신리 삼도동	1905년 1911년
1900 1900 1900 1900 1900	남전리 개북동 지곡 구암리 문장리	익산시 군산시 군산시 군산시		오산면	신지리 개북동 나운동1가 구암동 문장리	부위럼 1905,1911년
1901 1901 1901 1901 1901	석항리 삼례 화해 백호 송정제일	정읍시 광주시	무주군 완주군 해남군 광산군	설천면 삼례읍 북면 옥천면	두길리 삼례리 화해리 백호리 송정동	최중진 배유지 1930년 1906년
1902 1902 1902 1902 1902 1902 1902 1902 1902	만월 세동 세동 월봉리 모산 선두리 우수영 보생 대포리	김제시 익산시	순창군 진안군 진안군 해남군 해남군 장성군 화순군	북흥면 부귀면 부귀면 오산면 문내면 황산면 삼서면 동면	만월리 세동리 세동리 월봉동 오산리 선두리 우항리 보생리 대포리	최대진 임조사 이성철 1905년 1907년 1899년 1907년 1928년 1907년
1903 1903 1903 1903 1903 1903 1903 1903 1903 1903 1903	삼례제일 대광 대광 지경리 대창리 월성리 대전리 광암 황룡리 영신 칠정 광동중앙	군산시 김제시 김제시 영광군 나주시 장성군 장성군 화순군 광양시	완주군 진안군 진안군 옥구군 영광군 장성군 장성군 화순군	삼례읍 주천면 주천면 대야면 죽산면 봉남면 금천면 황룡면 진원면 동북면 진상면	삼례리 109 매불리 대불리 지경리 대창리 월성리 대전리 광암리 황룡리 율곡리 칠정리 섬거리	이문영 배유지 1903년 1934년 1907년 1926년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봉상 서두 원암 신촌 합라 화호 약산제일 관산리 분토 해남고당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고창군 완도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봉동읍 봉동읍 소양면 신림면 합라면 신태인읍 약산면 약산면 군내면 문내면	낙평리 구미리 대흥리 자포리 합열리 화호리 관중리 관산리 분토리 고당리	정길재 김판남 서국태 노학구 박중린 1899년 1903년 1905년 1905년

1904	양림리	광주시	남구	양림동	배유지	
1904	광주제일	광주시	동구	금동	배유지	
1904	서문정(나주)	나주시		성북동	오기원	1908년
1904	옥과리		곡성군	옥과면	강사흥	1906년
1905	문정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1905	뇌동리		완주군	화산면	와동리	
1905	소농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1905	제내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1910년
1905	고산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1905	삼례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905	울곡		완주군	고산면	울곡리	1906년
1905	삼길리(삼고)		임실군	신태면	삼길리	
1905	대평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1905	구암리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1905	금산(두정리)	김제시		수류면	금산리	
1905	김제동부	김제시			백학동	김재인
1905	북죽리	김제시			북죽동	
1905	동연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1905	무형(선리)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이상해
1905	천원제일	정읍시		임암면	천원리	박창옥
1905	만덕리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1905	작천중앙		강진군	작천면	갈동리	김점래
1905	성동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1905	부영리		영광군	영광읍	부영리	1904년
1905	묘량(신천리)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김선집
1905	도청리		장흥군	대덕읍	도청리	
1905	용성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1905	신태리		해남군	화원면	신태리	
1905	연정리		해남군	화산면	연정리	
1905	요기리	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1905	삼소지	광주시	북구		대촌동	타마자
1905	덕림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1905	방산리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1905	소룡리(성광)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1905	신흥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조상학
1905	고흥읍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1905	신천리		보성군	노동면	신천리	
1905	부만리		보성군	별교면	장좌리	배유지
1906	낙원	남원시		대강면	수흥리	보이열
1906	여울(삼가리)		부주군	적상면	삼가리	마로덕
1906	신리		완주군	상관면	신리	
1906	어진리		완주군	삼례읍	어진리	
1906	밀파리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1910년
1906	울곡		완주군	고산면	울곡리	
1906	두현		완주군	조촌면	두현리	
1906	보상리		완주군	봉동읍	고천리	
1906	매치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1906	금북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1906	라포리	군산시	옥구군	나포면	나포리	1932년
1906	옥산중앙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1906	송산리	익산시		용안면	송산리	



1906	웅포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하위럼	1904년
1906	제석(대봉암)	익산시	웅포면	대봉암리	이우석	
1906	화평	익산시	웅포면	인수리		
1906	앵성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1906	학오리		강진군	학명리		1908년
1906	대리		장흥군	대리		1910년
1906	북문밖	광주시	서구	화정동		1917년
1906	상재리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910년
1906	개동		수북면	개동리	하화준	
1906	대악리		장성군	대악리		
1906	평촌	순천시	화진면	평촌리		
1907	부주읍(읍내)		부주읍	읍내리 799	보이열	1918년
1907	쌍계리		순창군	쌍계리		
1907	구행리		완주군	구재리		
1907	두현리		완주군	두현리		
1907	계월		완주군	의암리		
1907	종리		완주군	종리		
1907	서두		완주군	구미리		
1907	유상리		완주군	광곡리		
1907	당상		부안군	당상리		
1907	난산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1907	냉정	김제시		연정동		
1907	원평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907	학천리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1907	서두리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555		1903년
1907	신덕리	정읍시	신태인읍	신덕리		
1907	예동		산내면	예덕리		
1907	월봉리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1906년
1907	원진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1920년
1907	예락		문내면	동외리	강택현	
1907	중흥리	광주시	북구	중흥1동		
1907	읍(읍내)		화순군	다지리		1910년
1907	광양읍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1908년
1907	용당	순천시		용당리		
1907	우하리	여수시	남면	우하리		
1907	장천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곽우영	1905년
1907	신흥리(신흥)		금산면	대흥리		
1907	운림리	고흥군	결백면	운림리		1909년
1908	남원읍	남원시		쌍교동		
1908	읍교회	남원시		도통동		
1908	중산		부주군	중산리 597		
1908	구룡리		순창군	구룡리		1910년
1908	금성리		순창군	금성리		
1908	진상동		진안군	황금리		
1908	변산		부안군	지서리		
1908	두화리(두동)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최진호	1923년
1908	서산		강진군	서산리		
1908	성남리		무안군	성남리		1914년
1908	대척리		무안군	대척리		
1908	비금덕산		신안군	덕산리	정인배	
1908	야월(염산리)		영광군	야월리	박중식	

1908	진목리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1908	초송리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1937년
1908	월암		해남군	마산면	맹진리		1909년
1908	수정		해남군	황남면	수성리	타마자	1907년
1908	신호		장성군	북면	신호리		
1908	수리	광양시	화순군	진상면	수리	선재련	1907년
1908	웅동	광양시		옥룡면	황죽리		
1908	대방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선재련	
1908	대방동	광양시		낙안면	용곡리	지원근	
1908	낙안중앙	순천시		별향면	쌍림리		
1908	이미	순천시			매곡리		1907년
1908	순천중앙	순천시		송광면	월산리	오석주	1910년
1908	월산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1908	명천		구례군	문덕면	봉남리		
1908	읍		보성군		양동리		
1908	양동						
1909	신평리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1909	남문외	전주시		완산구	교동	최의중	1909년
1909	이북		부안군	안성면	장기리		
1909	대수		부안군	백산면	대수리		
1909	종진(종리)		완주군	화산면	종리		
1909	고산읍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1909	도하리		임실군	운암면	지천리		
1909	학암리	익산시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	한완석	
1909	신동			합라면	신동리	최경틀	
1909	구정		부안군	일로읍	구정리		
1909	구정		부안군	일로읍	구정리		
1909	성암리		무안군	무안읍	성암리		
1909	영흥리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배유지	1914년
1909	일곡	광주시	북구		오산동		
1909	덕곡리	나주시		봉황면	덕곡리		
1909	백암리	광양시		옥곡면	북백리		
1909	섬거리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909	자랑리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		
1909	읍내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1909	구상리	순천시		서면	구상리		
1909	대치리	순천시		황전면	대치리	김내기	
1909	광암	여수시		율촌면	봉전리		
1909	구례읍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1910	완산정	전주시		완산구	대평동 291		1911년
1910	고산읍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1910	선거리		임실군	운암면	선거리		
1910	진안읍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811		
1910	김제제일	김제시			옥산동		1910년
1910	학장리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		
1910	영광읍		영광군	영광읍	부영리	김원복	1912년
1910	신학		완도군	군외면	신학리		
1910	수호리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910	향교리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1910	남창리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1910	읍내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1910	월평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조상학	
1910	광양제일	광양시	고흥군	광양읍	칠성리	선재현	1911년
1910	단교리		구례군	남양면	신흥리		
1910	대유리(광의)		보성군	광의면	대전리		
1910	대선리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1910	문암리		완주군	웅치면	문암리		
1911	구정리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김진영	1911년
1911	학동	김제시	완주군	동상면	동상리		
1911	장수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타마자	1917년
1911	금구		금구면	금구면	금구리	임종대	
1911	담양읍	담양군	담양군	담양읍	용사리		
1911	태인	광양시			태인동		
1911	서정(여수읍)	여수시		여수면	서정		1909년
1911	곡성읍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3구	조상학	1918년
1912	부곡	익산시		성당면	부곡리	안광국	
1912	장성읍		장성군	장성읍	대창(1동)	배유지	
1913	순창읍		순창군	순창면	순화리		
1913	학동		진안군	정천면	봉하리		
1913	본향리	나주시		왕곡면	본향리		
1914	진목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1914	월곡		담양군	월산면	중월리	박동환	
1915	운봉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위인사	1915년
1915	운선리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1915	덕암		고창군	공음면	덕암리	이대순	
1915	흑산예리		신안군	흑산면	예리	박도심	
1915	지도		신안군	중도면	대초리		
1915	대흥		장성군	북하면	대흥리		
1915	길두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유천석	1916년
1915	보성읍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이우석	1921년
1916	오수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1917	세진	남원시		송동면	세진리	위인사	
1917	산곡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부위령진	
1917	진흥리	김제시	영광군	황산면	진흥리		
1917	백양리		군남면	백양리	백양리		
1917	함평읍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917	주평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안성호	1920년
1917	도양중앙		고흥군	도양면	관리	이형숙	
1917	동강제일		고흥군	동강면	유둔리	안채룡	
1917	오천곡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1917	석곡		곡성군	석곡면	능파리	양홍수	1921년
1918	지남		영암군	군서면	동호리		
1918	연당		해남군	황산면	연당리	명혈립	
1919	고창중앙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도대선	1919년
1919	마산리		부안군	현경면	마산리		
1919	장평		장흥군	장평면	양촌리	나보선	
1919	마룡	순천시		상사면	마룡리	김종하	
1920	임실	익산시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위인사	1920년
1920	부송				부송동	송창식	
1920	진리	순천시	신안군	중도면	병풍리		
1920	엘림			해룡면	상내리	박평순	
1920	전능		고흥군	봉래면	선급리	정원모	

1920	화계		고흥군	점암면	화계리	보이열	
1920	신월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보이재천	
1920	특량		보성군	특량면	오봉리		
1920	별교		보성군	별교면	별교리		
1921	성운	김제시	부안군	금구면	청운리	윤성명	1927년
1921	복길		영암군	청계면	복길리		
1921	상일리		장흥군	학산면	상월리	박병곤	
1921	부평		고흥군	관산읍	부평리	지역풍	
1921	도화		순창군	도화면	당오리		
1922	유등		완주군	유등면	외이리		
1922	양진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1922	낙성리	김제시		금구면	낙성리 795		1926년
1922	정읍	정읍시			장명동	박도삼	
1922	도초중앙		신안군	도초면	수항리		
1922	가덕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보이열	
1922	남열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김동옥	
1922	조성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1923	호성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정희수 이재언
1923	효자동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923	줄포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1923	명량	김제시		죽산면	죽산		
1923	신태인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1923	와운		영암군	금정면	와운리		
1923	미야리		해남군	송지면	미야리		
1923	토계리	나주시			토계동		
1923	서촌리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1923	월전		구례군	양문면	월전리	서고독	
1923	수남		보성군	점백면	수남리		
1923	남양		보성군	점백면	남양리		
1924	덕천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정희수 이제춘 조상학 양용근 임찬호
1924	신흥	군산시			금동		
1924	법성동		영광군	법성면	월산리		
1924	광주양림	광주시	남구		양림동		
1924	덕양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924	성암	여수시		울촌면	신흥리		
1924	나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1924	대봉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924	산동		구례군	산동면	원촌리		
1925	개정중앙	군산시	옥구군	개정면	아동리		백종세  김성수  이창호 원대성 박병학 김평준
1925	백구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1925	와리	익산시		함열읍	와리		
1925	죽교	목포시			죽교동		
1925	장동		신안군	임자면	장동리		
1925	비금서부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1925	법성포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1925	남동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1925	신안	광주시	북구		신안동		
1925	산정리	나주시			산정동		
1925	돌산읍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1925	가야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1925	곡성압록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1925 1926 1926 1926 1926 1926 1926 1926 1927	입면 완산 울치 강진 용학 선정 대치 제촌 예동 줄포	전주시         순천시 여수시	목성군 완산군 완주군 임실군 부안군 장흥군 담양군  보성군 부안군	입면 상면 강진면 해평면 봉산면 대전면 황진면 울촌면 보성읍 줄포면	매월리 서완산동 사봉리 강진리 용학리 선정리 대치리 괴목리 가장리 옥암리 줄포리 199	노병현  최의덕   조기봉 변요한 임영수	1926년
1927 1927 1927 1927 1927 1927 1927 1927 1927	마산 장계 용산 오산 다송 용전 월정 묘도 송산 원등	익산시 광주시      여수시	완주군 장수군 고창군 고창군 광산군 장성군  고흥군 곡성군	상관면 장계면 부안면 부안면 함열읍  남면 포두면 삼기면	마치리 장계리 용산리 오산리 다송리 요기동 월정리 묘도동 송산리 원등리	박성채     이타관 이동주 황하운 이병준	1928년 1931년
1928 1928 1928 1928 1928 1928 1928 1928 1928	갈계서부 앞섬(내도리 황등 매한 목포동부 성문 목포동부 성문 상곡리 신성	남원시  익산시 정읍시 목포시 목포시 목포시 목포시 순천시	부주군      함평군	아영면 부주읍 황등면 태인면  해보면 해룡면	갈계리 내도리 황등리 매계리 용당1동 산정3동 용당1동 산정1동 상곡리 신성리	위인사 김병구    김점례 윤치호 김재관	1928년 1933년
1929 1929 1929 1929 1929	우방 대흥리 이속리 청산 신촌(단전) 황금	전주시  군산시  광양시	완주군 옥구군 완도군 장성군	덕진구 소양면 옥구읍 청산면 북하면	인후동2가 대흥리 이곡리 도청리 단전리 황금동	   유진석 유춘환	1930년 1913년 1930년
1930 1930 1930 1930 1930 1930 1930 1930 1930 1930 1930	중양 단지동 대신 가보 하목 고부 연동 평산 평산 지남리 금갑리 송석 한천 동산	전주시  김제시 김제시 김제시 정읍시 목포시      순천시	완주군      부안군 부안군 신안군 진도군 화순군 화순군	완산구 봉동읍 청하면 진봉면 황산면 고부면  삼향면 삼향면 도초면 의신면 이양면 동북면 서면	고사동 단지동 대청리 가실리 진흥리 고부리 연해동 왕산리 왕산리 지남리 금갑리 금능리 한천리 동산리	김응규      진공해 유병금 김치원 김영록	1927년

1930 1930 1930 1930 1930 1930	압곡리 학구리 과역리 과역리 대명리 대명리 별	순천시 순천시	고흥군 고흥군 고흥군 보성군 보성군 완주군	서면 서면 과역면 과역면 교읍면 교읍면 소양면	압곡리 학구리 과역리 과역리 농소리 농소리 원봉리	박성기 정귀준  김정덕 황보익	
1931 1931 1931 1931 1931 1931 1931	소양리 오중리 금암리 교인동 소태리 영락리 오봉리	군산시 군산시 광주시 여주시	완도군 광산군 보성군	군외면 득량면	황운리 하장리 금암동 교인동 소촌동 봉산동 오봉리	부일영 김아열 이춘봉	1932년
1932 1932 1932 1932 1932 1932 1932 1932 1932 1932	산내리 서포리 만석리 태인리 총월리 비금리 비금리 매산리 능주리 월등리 옥암(원례동)	남원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순천시	옥구군   강진군 부안군 신안군 담양군 화순군 보성군	산내면 나포면 오산면 태인면 도암면 일로읍 비금면 고서면 능주면 월등면 보성읍	대정리 서포리 영만리 태인리 용흥리 상신기리 지당리 교산리 석고리 대평리 옥암리	김학준      문영옥  조사라	1932년        1940년
1933 1933 1933 1933 1933 1933 1933 1933 1933 1933	남전주 둔덕리 동부리 천서리 칠보리 중양리 수다리 구봉리 마산리 월곡리 대곡리 당오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북포시      순천시	임실군    신안군 합평군 해남군 화순군 고흥군	완산구 오수면  촌포면 칠보면  도초면 신광면 마산면 도곡면 별량면 도화면	삼천동1가 둔덕리 중양로2가 천서리 시산리 죽동 수대리 함정리 화내리 월곡리 대곡리 당오리	이길순 류서백 이춘심 정부오	
1934 1934 1934 1934 1934 1934 1934	황벌리 부풍리 관촌리 송학리 항재리 양문교 신안리 동산리	남원시   익산시	부주군 임실군  강진군 무안군 해남군 보성군 부주군	보절면 부풍면 관촌면 오산면 도암면 해제면 해남읍 조성면	황벌리 현내리 관촌리 오산리 향촌리 양매리 신안리 동촌리	김병곤 정찬옥 원용혁  조규범 정관조	
1935 1935 1935 1935 1935 1935 1935	설천리 청웅리 신용리 용계리 쌍봉리 월창리 팔산리	김제시 익산시	임실군 영암군 영암군 해남군	설천면 청웅면 부량면 낭산면 서호면 미암면 옥천면	소천리 구고리 신용리 용기리 쌍봉리 채지리 팔산리	임무준 조요섭	1935년 1935년

1935	일곡	광주시	북구	세지면	두암1동		
1935	내정리	나주시		양면	내정리		
1935	축부		고흥군	봉양면	고옥리	박성주	
1935	장천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1935	덕산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		
1936	장기리		완주군	봉동면	장기리		
1936	성송	군산시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	송진섭	
1936	성덕	익산시	옥구군	성산면	성덕리		
1936	갈전			금마면	갈산리		
1936	월선		부안군	청계면	월선리		
1936	세동		완도군	고금면	세동리	한국태	
1936	개령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라덕환	
1936	순천제일	순천시			지전동		
1937	동부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937	삼일	익산시			석탄동	최석철	
1937	하묘		부안군	운암면	하묘리		
1937	매월		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1937	신학리		완도군	군외면	신학리		
1937	신월		해남군	북평면	신평리		
1938	신광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1938	변암	군산시	장수군	변암면	노단리	정택진	1938년
1938	발산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진위렴	
1938	여청도			옥도면	여청도리	이천호	
1939	장신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1940	토기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정태인	

이상이 미국남장로교회 선교부가 1892년부터 1942년까지 전남지역에 개척한 교회현황이다(송현숙 2011:206-214).

##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 김소정  
2014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부의 아동선교(1892-1945)*. 서울: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 김인수  
2009 *레널즈(W. D. Reynolds)가 한국장로교 선교상황의 발전과 변화에 끼친 영향 연구*.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 박기호  
2016 *타문화권 교회개척*. Pasadena, C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박윤애  
2007 *린튼(Linton) 가(家)의 사역을 통해 본 북한 선교 고찰*.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 송현숙  
2011 *호남지방 미국 남장로교의 확산, 1892-1942*. 천안: 高麗大學校 大學院.
- 안기창  
2006 *순천지역 선교 100주년 기념시집: 선교이야기*. 서울: 쿤란출판사.
- 이양재  
2001 *순천지역 초기 선교역사 연구*.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 임윤택  
2005 *湖南地方의 社會福祉發展에 관한 研究*. 전주: 全州大學校 大學院.
- 조용호  
2007 *미 남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D. 레이놀즈의 생애와 신학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 Gibbs, Eddie  
1994 *현대 교회성장학*. 최정술 역. 서울: 요나출판사.
- Glasser, Arthur F.  
1981 "맥가브란의 교회성장학적 관점." *교회성장의 신학*. H.M. Conn, ed. 서울: 성광문화사.
- Huntley, Martha L.  
2009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차종순 역. 서울: 쿰란출판사.
- McGavran, Donald Anderson  
1987 *교회성장 이해*. 전재옥, 이요한, 그리고 김종일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하나님의 선교 전략*. 이광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Nevius, John L.  
1985 *네비우스 선교방법*. 서울: 성광문화사.
- Tippett, Alan R.  
1979 *교회성장과 하나님의 말씀*. 서울: 보이스사.
- Wagner, Peter C.  
1990 *교회개척 이렇게 하라*. 서로사랑 편집부 역. 서울: 서로사랑.
- Allen, Roland  
1962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 Glasser, Arthur F.  
1976 "An introduction to the Church Growth perspectives of Donald Anderson McGavran." In *Theological Perspectives on Church Growth*. H.M. Conn, ed. pp. 21-42.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 Hesselgrave, David J.  
1980 *Planting Churches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Baker.
- McGavran, Donald Anderson  
1935 Education and the beliefs of popular Hinduism, a study of the beliefs of secondary school boys in Central provinces, India, in regard to nineteen major beliefs of popular Hinduism. Ph D, Columbia university.

- 1974      *The clash between Christianity and cultures*. Washington: Canon Press.
- 1980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ch.: Eerdmans.
- 1988      *Effective evangelism: a theological mandate*.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 McGavran, Donald Anderson, and Win Arn
- 1973      *How to grow your church: conversations about church growth*. Ventura, Calif.: Regal Books.
- Nevius, John Livingston
- 1882      *China and the Chinese: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country and its inhabitants; its civilization and form of government; its religious and social institutions; its intercourse with other nations, and its present condition and prospects*. Philadelphia, P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 Peter Kuzmic
- 1986      "The Church and the Kingdom of God: A Theological Reflection." In *The Church: God's Agent for Change*. B. J. Nicholls, ed. Exeter, UK: The Peternoster Press.
- Spradlin, Matthew Donald
- 2012      "The Role of 'Perfecting'." In *Donald McGavran's Church Growth Thought*. Louisville: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 약력(VITA)

홍장희는 1953년 광주광역시 산수동에서 아버지 홍건식과 어머니 오광희 사이 7남매중 세째로 출생했다. 모태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릴적 부터 어머니를 따라 새벽교회에 나가 믿음을 키웠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 되었고 장성하여 자연스럽게 신학을 공부한다. 1978년 호남신학대학교 입학과 함께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 교회개척 사역에 참여한다. 남장로교 헌틀리 (Charles Betts Huntley) 선교사는 광주기독병원 원목(1967-1985) 으로 사역하면서 환자들에게 전도하여 결신하도록 했고 나는 결신했던 사람을 찾아 지역교회에 정착하도록 도왔다. 이 일은 1983년 장로회신학대학을 마칠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땅 끝까지 이르는 거리를 순회한 것이다.

나는 남장로교 선교사와 함께 사역하면서 1979년 광주뽕엘교회를 개척한다. 1983년에는 전도사로 대현교회를 개척했고 1988년에는 가족으로 구성된 광명교회에 부임하여 목사임직을 받았다. 지금 시무하고 있는 예수사랑교회는 2001년

부임하여 지금까지 교회 개척의 어려움을 뺏속 깊이 경험하고 있다.

2003년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6년 호남신학대학교 박사원과 공동운영하는

미국 Howad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D.Min)

2017년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D.Min.in Global

Ministry) 과정을 마쳤다.

나는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개발된 은사는 ‘ 교회개척’ 이었고, 교회개척이 평생사역으로 정립되어 2017년 5월 19일 ‘ 교회개척연구원 (IBMC)’ 을 설립하였다.

1982년 전남 담양 출신 이해란과 결혼하여 현진, 현설, 보석 사랑하는 세 아들을 두었다. 둘째 홍현설은 허철선(Charles Betts Huntley) 선교사와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받아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공부하며 제자훈련에 전념하고 있다